



삶자연 이야기

이석규

소개글

인간과 자연 또는 역사와 사회를 대립시키거나 갈등과 분쟁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공존 상생 그 이상 약자를 위한 무조건적인 선택이 지금 필요하다. 신의 윤리를 강조하고자 한다. 신의 윤리는 신이 자연과 삶에 동떨어져 있어서는 안되고 육화되어야 할 진대. 이는 우주와 신의 조화 합류이며 인간과 신의 합류에서 가능하다. 삶 자연은 신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을 삶 자연 안에 충만하게 모시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신을 통해 자신을 채찍질 하면서도 유쾌함을 갖게 된다. 자연이 주는 모든 것은 선도 악도 없다.

목차

1	時間과 空間의 雪國: 그 美醜	5
2	인-자연과 연애하기: 생태적 용기를 위하여	6
3	신호-등과 횡단보도의 미학	8
4	자연과 연애하기4: 생태적 지혜를 위하여	10
5	자연과 연애하기3: 생태적 감수성을 위하여	12
6	자연과 연애하기2	14
7	자연의 질서는 인간의 도덕적 질서에 비례한다: 시간이 촉박하다	16
8	피서는 감각이다	17
9	물은 모든 살아 있는 곳에 권한이 있다.	19
10	우주적 인간(Hermann Timm)	20
11	물과 기름의 힘과 공포	21
12	노동절을 맞이하여	22
13	지구는 살아 있다	23
14	자연 힘 인간 신	24
15	저주받은 자연	25
16	삶과 죽음의 양극화	26
17	자연만이 근대와 전근대 탈현대를 가로지를 권한이 있다	27
18	인간이 땅을 떠나면	28
19	자연이 제2의 자연(인간)을 습격 또는 감싸안기	29
20	바이러스 증상: 신종 인플루엔자	30
21	일하는 신과 일하는 인간	31
22	왜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어야 하는가?	32
23	존재의 시간과 공간의 미추(자연090108)	33
24	태초의 욕망이 있었다(문화081226)	34
25	마지막 여름	35

26	들숨날숨의 변증법	37
27	우리는 21세기 니체를 또 기다려야 하는가/되어야 하는가	38
28	삶과 죽음의 변증법	39
29	생산하는 생산되는 자연	40
30	생명 지킴은 이벤트가 아니다	41
31	생명의 바다로 다시 흐르도록 하자	42
32	대우주와 소우주/자연1	43
33	녹색 배움터	48
34	숲에 빠지다	50
35	비가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너무 덮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51
36	2011년 7월 19일 오후 12:47	53
37	지진은 자연스러운가 反 자연스러운가	55
38	자연이 자연이 아닌가 보다	57
39	자연의 짝짓기를 위하여 Bildung und Ecology: Co - evolution을 위하여	59
40	늦은 추석	60
41	자연의 저항	61

時間과 空間의 雪國: 그 美醜 時間과 空間의 雪國: 그 美醜 時間과 空間의 雪國: 그 美醜

눈이 왔다. 밤새 많은 눈이 내렸다. 아침에 그 눈을 밟으며 천을 따라 걸으며 커다란 징검다리에 쌓여 녹는 눈을 밟으며 천을 건너며 동산 자울의 아카데미로 도착했다. 여기에서 시간과 공간 그리고 눈의 나라 설국의 아름다움과 추함이 펼쳐진다. 아름다움과 추함. 아주 다른 이질적인 것 같지만 아주 친밀한 것 이상의 관계를 가진 것 같기도 한. 애매하고 역설적인 모호한 미학적 감각적 연출. 아름다움과 추함.

눈이란 바로 아름다움과 추함을 동시에 가진 물 얼음물 수분 공기 고체 액체 기체를 가로지르는 물질. 물이 물이 아닌 것으로 눈이 눈이 아닌 것으로 고체가 고체가 아닌 것으로 액체가 액체가 아닌 것으로 기체가 기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과 초월의 감각 덩어리.

이 모든 현상과 초월은 빛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감각의 빛의 감각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빛의 감각이 이 모든 눈의 설국의 시간과 공간의 미추를 감성과 이성의 지평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눈 설국은 아름답기도 하고 추하기도 하는가.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은 아름다워 보인다. 왜 아무도 밟지 않고 지나가지 않았기에 그렇다. 그런데 밟힌 눈은 아름다움을 상실해 가는 것 같다. 아스팔트에 깔려 시꺼먹게 멍든 눈은 보기에 흥칙할 정도다. 차라지 내리지 않고 쌓이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은 추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자연도 그렇다. 욕망과 탐욕의 기계에 밟히면 밟힐수록 아름다움을 상실하고 추한 모습으로 변종되어 버린다. 탐욕의 기계 기술을 무한으로 찬양하고 싶기도 하지만 이럴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냥 추한 꼴이다. 인간도 여기서 제외될 수 없다. 그 무엇에 의해 밟히지 않으면 원시원초의 자연동물식물생명체처럼 아름다울 것이리라. 하지만 자력 타력에 의해 밟힐대로 밟힌 인간 아름다울까. 전혀. 정말 추하다.

눈을 보며 깨달아진다. 밟히지 말고 밟지 말것을. 혹 자연의 힘에 의해서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고 다시 고체로 변한다고 할 지라도. 추한 꼴로 녹아내기리보다. 그냥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아름다움의 감각. 현상과 실재. 초월을 감각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과 공간의 설국이야말로. Es geschah Wundersch□n!!

연애하기 위하여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용기는 때론 만용으로 때론 비겁으로 때론 옹맹으로 때론 부족함으로 때론 적당함으로 때론 차고 넘침으로 펼쳐진다. 그렇다면 생태적 용기란 무엇인가. 생태적인 용기를 드러내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용기에 생태적인 면이 있다는 것인가. 연애에는 실패와 좌절이란 없다. 다만 슬픔과 기쁨 사이의 간극만 있을 뿐이다. 구멍과 틈새만 존재한다. 그렇지 못하면 연애는 그 자체로 붕괴된다. 왜냐하면 연애란 한 사람이 잃고 한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잃는 것도 얻는 것도 있을 수 없다. 다만 사이 경계에서 피어나는 꽃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 꽃은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없다. 봉우리가 터지고 향유가 생긴 다음에 시들고 사라진다. 연애도 꽃 처럼 그러하다. 좌로도 우로도 치위치지 않고 다만 틈새 구멍에서 피는 꽃을 위해서 존재한다. 인간의 연애가 그렇지 못하고 소유와 존재로 압투 결투하게 될 때 그 연애는 더 이상 없다. 그렇지 못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대신으로 상처와 값싼 희생과 쓰레기만 쌓일 뿐이다. 여기에 용기는 간극 틈새 구멍에 꽃을 피우게 하는 역능 힘이다. 생명 자체의 씨앗이다. 용기는 결핍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자아와 동등하게 배치시킨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용기는 위와 같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용기를 실현을 꿈꾸던 자였다. 테레사 수녀의 자비의 실천적 삶도 그러한 용기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위대한 인간들의 용기와 더불어 수 많은 용기들이 있다. 그러한 용기들은 우리의 일상의 힘 역능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이러한 일상의 용기이다. 타자에게 주는 자로서의 용기가 아니라 타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본래의 타자 자신을 찾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용기의 역능이다.

자연은 지쳐있다. 자연은 쓰러질 것 같다. 자연은 죽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인간이 자연을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대한 것이 아니라 탐욕이라는 용기 비겁이라는 억압과 착취 지배라는 용기가 그것을 대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연은 얼굴을 외면하고 있다. 상처를 한 얼굴과 몸을 뒤로 하고 더 이상 인간과 말걸기를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 어려워진 자연과 연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용기라고 할 수 있다. 자연이 황폐해진 자연이 과연 이러한 인간의 용기에 응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하여 인간은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 겁 없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물불 안가리는 청소년들의 심장을 닮은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심장의 소리와 느낌 감각을 가질 수 있는 자연에게 전달되고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할지 않을까.

그 용기가 신학자 문화철학자인 폴 틸릭에게 '존재에의 용기'였다. 신앙 신념을 가진 열정적인 헌신 희생적인 용기가 아닌가. 회피하지 않고 그 모든 정신적 물질적 장애물을 넘어서 힘을 다해 관통하는 그런 신념의 용기가 아닌가. 그래서 자연은 화상당한 얼굴을 돌릴지도 모른다. 화상당한 얼굴. 과연 인간은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그 화상당한 자연의 얼굴을 마주치고 비비고 그리고 얼굴이 회복될 수 있기 위한. 화상당한 자연의 얼굴은 인간은 자연의 얼굴이라고 대할 수 있을까. 인간은 용기를 내어야 한다. 단 하나의 용기가 바로 생태학적 용기 생태학적 감수성과 지혜를 동반한 생태학적 용기이다. 화상당한 자연의 얼굴이 웃고 치유되기 위하여. 이제야 인간은 화상당한 자연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자연의 또 한 번의 내어줌을 통하여. 그것도 화상당한 자연의 얼굴을 말이다.

인간은 왜 이 자연의 얼굴 더구나 화상당한 얼굴을 보지 못했다. 피어로 쌍소의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가 연상된다. 왜 느리게 살아야 하는가. 느리게 살면 모든 것이 허무하다. 뒤 처진다. 묶여 있다. 갇혀있다. 썩는 것 같다. 우리는 그래서 게을름을 싫어하지 않는가. 빨리 더 빨리 가야한다. 앞만 보고 더 빨리 가야한다. 그래서 먼저 먼저 성취할 수 있다. 알고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위하여.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얼굴이 타 들어가는 것도 모른채 그리고 그 열기가 인간 자신에게 느껴지는 것도 모른 채 달려갔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달렸다. 자연의 얼굴이 타 들어가도록.

얼마나 답답하면 자연의 얼굴이 그 화상당한 얼굴이 등을 다시 돌렸을까. 우리는 빛진자다. 죄인이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라고 자백고백탄식하고 그리고 보고 느끼고 생각해야한다. 자연의 화상당한 얼굴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 자신을 녹색으로 생태적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 자연의 얼굴을 치유할 수 있는 녹색의 생명의 용기를 발라주어야 한다. 그 화상당한 얼굴이 멀쩡한 아름다운 얼굴로 회복 치유될 때 까지. 그런 다음에야 우리 인간은 생태적 용기를 가지고 자연과 말걸기를 하고 연애할 준비를 한다. 더 빨리 더 멀리가 아니라 점점 더 느리게 더 가까 모든 것들을 느끼고 듣고 생각하며 자연과의 진지한 연애를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럴때 우리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예스 연애를 허락받을 수 있다. 쪽 팔리는 할 수 없지만 쪽 팔리는 연애의 허를 자연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 간극에 틈새에 피어날 꽃을 피우기 위한 한 마리의 벌과 나비처럼.

신호등. 언제부터 생긴 것일까. 자료에 따르면 세계 최초의 신호등은 1868년 영국 런던에 가스를 사용하는 수동식 신호등이었다. 이 신호등은 적색과 녹색을 표시하는 장치로 경찰관이 직접 수동으로 조작하는 장치였다고 한다. 신호등은 왜 생긴 것일까. 그것은 먼저 가라고 그렇지 않으면 사고난다고가 아닐까. 신호등의 색깔은 두 가지로 분명하다. 적색과 녹색이다. 적색은 정지 또는 더 깊은 의미로는 정지하지 않으면 죽음의 벌이 내린다고. 녹색은 자유 가라고 생명을 의미한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아무튼 돌 다리라고 징검다리라도 있어야 하고 깊고 넓은 강이 있다면 돌 다리로는 충분하지 않기에 교량을 설치 다리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 물에 빠질 위험이 없이 잘 건널 수 있다. 가끔은 다리가 무너질까 두려움 마음도 생기고 그러한 사고가 흔하지 않게 발생하지만 다리로 건너면 편하고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발명과 이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넓은 좁은 장단의 도로들이 건설되었다. 자동차들은 시선을 앞으로 하여 계속 달리고 싶어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자유롭게 도로를 건너고 싶어한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 앞으로 달리려는 자동차와 달리는 자동차를 무시한 채로 도로를 건널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도로를 건너는 사람들을 무시한 채로 자동차도 달리고 싶지만 여기에 중대한 사고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교통사고는 자동차와 자동차가 충돌하는 경우에도 많이 발생하지만 자동차와 사람들이 무심결에 서로 달리고 싶은 욕망의 충돌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자동차도 파괴되고 그 안의 사람들도 다치거나 죽고 이 자동차와 충돌한 사람들 또한 심하게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하여 신호등의 역사는 시작된 것이다. 신호등을 아름다움 감상하기 위한 장식품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신호등의 원래목적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경우다. 물론 신호등이 원래의 자동차와 인간의 생명의 안전보호를 위한 장치로 사용되고 있지만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것과 더불어 주변환경과 어울어지는 또 다른 모습을 찾을 수 있다면 신호등이 외적인 미가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어찌 되었든 신호등은 인간 자동차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동을 보장해 주는 상징인 것이다.

따라서 신호등은 개인의 물건일 수 없고 공공의 물건이다. 개인의 생명을 안전보호해주는 일이 배제되지 않지만 신호등은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물건이 아니라 다중 전체를 보호해주고 이로써 개인의 질서를 넘어서 공공의 질서를 보장해 준다. 그래서 신호등은 공공의 법으로 보장된 장치인 것이다. 만약 이것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한다면 위법이며 여기에 따른 형사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신호등 자체가 바로 법을 상징한다. 하라와 하지말라.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남녀노소 모두가 동등하고 공평하게 지켜야 할 의무이며 책임이다. 그렇지 못하면 예기치 못한 죽음의 위협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신호등은 횡단보도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건너는 길을 횡단보도라고 하고 그 길을 안내하는 등이 바로 신호등이다. 물론 인적이 드문 곳에 교통량이 적은 좁은 도로 등에는 신호등이 없어서 자동차나 사람들이

눈치를 보며 자동차들이 다가 오나 사람들이 도로를 건너나 살펴본 다음에 이동을 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개인중심 힘센 사람중심이라는 유교적인 사회에서는 자동차가 왕이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은 다만 약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쉽사리 목숨을 담보로 내 주기 싫다면 강자에 굴복하고 만사를 제쳐놓고 도로를 건너기 위한 최선의 주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습은 법으로 규정되지 않았기에 현실적으로 실현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많은 국가들은 비록 신호등이 설치되고 도로의 주인이 자동차라고 주장하지만 언제나 도로를 횡단하는 약자 사람들을 배려하고 우선하는 습관관습들이 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생명을 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무시한다면 죽음이라는 미학밖에 남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기에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안전하게 보장보호해 주는 상징적 법으로 삼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사람의 이동 속력에는 제한이 있지만 자동차의 운동속도는 상대적으로 무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위급한 문제는 교통사고 인명피해와 직결되기도 한다. 물론 도로는 차들이 주인이고 오늘의 경제적인 시대에 속도가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모든 것도 생명만큼 귀중하지 못하다. 왜 살기 위해서.

간단한 양심의 양보와 관용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 살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리 강조해도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약자를 위한 양보와 관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것이야 말로 참다운 상징으로서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왜 살기 위해서. 약자를 위한 배려를 넘어서 약자의 당파적인 필연적인 권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신호등과 횡단보도는 그래서 미학 생명의 미학의 공간이며 물건이다.

모든 법과 질서가 위에서 언급된 신호등과 횡단보도의 원리대로 작동된다면 이 사회 이 세계는 그렇게 험난한 삶으로만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 단순하지만 오묘한 약속과 이행 그리고 여기 간극 틈새의 힘은 다양한 약자들에 에 대한 양보와 관용이야말로 오늘 바로 이 시대 지역적으로 지구적으로 아니 한국사회에서 당장 필요한 일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생태적 지혜라. 우리는 지난 글에서 생태적 감수성을 위한 단상을 했다. 자연은 감수성이 가장 탁월한 영역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절대적으로 단순하고 정직하다. 자연스럽다는 말은 따라서 정직하다는 말과 상통한다. 그렇기에 자연에 대한 외부의 습격과 공격 침입 그리고 그로 인한 외상은 직접적으로 그대로이다. 자연이 생명체들에게 주는 힘은 무한한 생명력으로 가능하기도 하지만 외상 또한 정도에 따라서 매우 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 자연이 인간의 개발과 자연고갈과 착취로 인하여 있는 그대로 자연스런 자연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법칙이다. 자연 속에 거주하는(오이코스) 인간은 이러한 자연이 주는 긍정적인 힘과 더불어 이것에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 대가를 지불받는다. 그 대가는 자연이 당한 외상들 보다 오히려 더 참혹하고 비참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 자연의 생태계 그리고 환경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심성 바로 자연의 감수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감수성을 아이와 비교했다.

그렇다면 보다 더 실천적인 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보편적으로 강조하기 위하여 생태적 지혜를 언급해야 하는 것이다. 생태적 지혜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것은 올바른 인식과 의식에 비롯된다. 이 올바른 인식과 의식이 바로 생태적 감수성이라면 여기에서 부터 생태적 지혜가 시작한다. 생태적 지혜는 실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생태와 환경 속에서 주어진 인간과 자연을 가치로 환산하는 태도를 포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본래의 자연을 경외하는 것이다. 자연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생명을 존중하고 의롭게 여기는 생명경외의 정신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자연을 경외하는 사상은 사실 종교와 무관하지 않다. 동양종교의 무위자연이라든가 자연에 대한 친화적 수행 등도 그렇고 서양종교인 기독교의 신의 무로부터의 창조는 자연의 합일정신과 더불어 자연 땅의 소유가 자연 자체 즉 신에게 있다고 믿음으로 자연에 대한 경외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롯되는 무소유 무주인의 정신이야말로 바로 생태적 지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생태적 지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과 자연 그리고 생태 환경을 위해서 즉 생명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지속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결정하는 실천적 범주이다. 생태적 지혜는 나 중심 인간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바로 타자 약자 고통당하는 자 중심의 사고 지구중심적 사고를 넘어서 우주중심의 총체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생태적 지혜의 목적은 바로 생태적 즐거움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실천이 있어도 그것이 현실과 미래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하며 무익하고 무의미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적 지혜는 모든 인간 뿐만 아니라 특히 생명을 보장 받지 못한 못한 피조물에게 생명을 되 돌려 주는 환희 즐거움 주이쌍스를 안겨주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상처받은 인간과 생명체 뿐만 아니라 무한한 생명을 공급하는 자연도 더불어 주이쌍스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다.

감수성하면 얼른 떠오르는 것은 아이들이다. 어린 아이만큼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어린 아이는 모든 것 즉 생물학적인 정신적인 성숙이 자리를 잡고 균형잡히고 완성되는 자들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만지고 보고 듣고 이것들을 행동의 욕망으로 표현하고 싶어한다. 이러한 욕망을 억제하거나 중단시키려는 수 많은 방해세력들을 무시하고 어린이의 감수성은 무한으로 펼쳐지는 것 같기도 하다.

또한 어린이의 감수성은 거짓이 없다. 감각하고 상상한 것을 모든 그대로 쏟아 내려 한다. 그 사이를 조작하는 왜곡하는 과정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안하기도 하다. 여기에 희망과 절망 지속과 중단이 가능하다.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이의 감수성이다. 무한한 자유가 있는 대신에 여기 다른 책임은 보장되지 못하며 무한한 시간과 공간의 향유가 있는 대신에 반복적인 반응을 통해 중독되기도 한다.

아이의 감수성의 세계 안에는 높고 낮음 깊고 얕음 크기가 없고 필요 없다. 모든 것이 동일하게 독특하게 다양하게 움직일 뿐이다. 그렇기에 아이의 감수성은 근원적인 샘물이기도 하다. 아이가 만나는 접촉하는 대상들은 대상들이 아니라 또 다른 자아이다. 나와 너가 분리되지 않는다. 모든 소유가 존재가 독점되지 않은 채로 공유되며 공존한다.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서 바로 이러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어린 아이의 감수성은 그래서 자연과 비유된다. 만질 수 없는 소유할 수 없는 빈 영역으로. 하지만 아이의 공간은 이러한 무한한 자유와 여유 때문에 외부로부터 침입당하거나 습격당하기도 쉽다. 그 무엇으로부터도 열려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심스러워야 한다. 마치 유리 그릇을 머리에 이고 가는 마음으로 조심스러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동의 또 다른 여유가 유리 그릇을 떨어트리고 깨지게 만든다. 그래서 감수성의 왕인 아이와 만나기 위해서는 아이-되기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생태적 감수성이란 바로 인간의 자연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행동 하나 하나가 자연과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생태적 감수성은 단순히 느끼기가 아니라, 나눔의 원리이다. 자연이 무한대로 자신을 분열하며 자신 생명을 나누어 주듯이 그 무한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다시 되돌려 주려는 생태적 나눔이다. 자신의 몸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자연에 있듯이, 그 근원은 자연의 소유주는 인간이 아니라 창조자 신께 있다는 고백을 통해서 가능하다.

경쟁으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시대에 이러한 생태적 감수성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일은 매우 힘들다. 하지만 이런 상태로 오늘의 환경과 사회 그리고 정신이 지속된다면 모든 것이 파괴되고 말 것이다. 쓰레기도 남김 없이.

자연과 연애하기란 쉽지 않다. 연애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 오히려 서로 타자 주체의 욕망을 탐색하고 발견하고 채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기도 하다. 그러면서 서로 욕망의 교환하는 교감의 정신과 물질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욕망이 어느 주체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작동되거나 실현되려 할 때 그 욕망은 곁핍에 따라 피폐해질 뿐이며 뒤틀린 왜곡된 즉 연애의 욕망이 아닌 것이다. 그것은 다만 강제적인 겁탈 폭력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그래서 에리히 프롬의 저작대로 욕망과 연애에서 '사랑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인간과 인간의 연애는 따라서 다른 생물체의 성적결합 번식본능의 욕망에 머물지 않고 차별화되어 있다. 그렇듯이 연애란 그리 쉬운일이 아니다. 더구나 대 자연과의 연애는 어머니의 무한한 어머니의 품 같은 것이어서 인간의 생물체의 얕은 본능적 욕망으로 화합될 수 없다. 그렇게 했다간 오히려 욕망을 시작하는 주체들에게 단순한 상처와 고통들만 연속될 수밖에 없다. 무의미한 그 무엇에 불과하다.

1968년은 두 가지 기억과 사건으로 채워지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 한편으로 그 해는 북미와 일본 유럽의 파리와 베를린 등지 또는 그 외의 국가와 수도에서 전통적인 권위주의와 배타적인 의식과 사상 위계질서 그리고 남성중심의 사회질서를 맞서가 그 대신 자유와 평등 그리고 평화를 내세운 혁명적 시대의 징조가 시작되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그 날 지구의 지성인들과 지도자들이 로마클럽(The Club of Rome)을 결성하여 인간의 무한한 진보와 개발정책에 따른 복지와 편리함 새로움의 창조와 더불어 자연환경의 파괴 자연 에너지의 한계상황 노동력의 착취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적인 문제와 위기에 따른 책임과 의식을 발견하게 되었다. 예컨대 인간과 자연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독점하고 종속시키고 착취하는 대상으로 남용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초래한 막대한 무시무시한 결과들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와 결과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대안을 세우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 로마클럽은 시대정신에 입각해서 시대진단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반성과 더불어 책임의식의 고취와 실천적 장이 마련되기도 했다.

그리고 40여년이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기술문명과 복지 인공적 환경은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이른바 진보발달하고 있고 편리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연의 에너지는 점점 더 고갈되고 더욱 악화된 것은 자연환경 자연이 급속도로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연은 물론 인간과 생명체가 보존되고 유지되는데 매우 위협적으로 공격당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하지만 다윈식의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가 현실사회를 거의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기때문에 소중파와 소수자들의 친환경 생명운동 자연회복운동은 너무 무력해 보이는 것 같다.

따라서 모든 생명체가 본능적으로 자연의 질서에 의하여 욕망을 통해 욕망을 생산하고 번식하고 생명을 이어가듯이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식에 의한 '자-연-과-연-애-하-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헤겔은 인간을 제2의 자연이라고 말했고 루소는 그 당대에도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낭만주의적 선언을 했다. 정작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소유주로

서 자연 즉자적 자연인 인간이 자신의 자연을 회복하고 자연의 품으로 안기는 것이다. 자연의 품으로 안기기 위하여는 자신이 걸치고 있는 것을 모두 포기하고 무-소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작 연애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연애는 언젠가 배반당하고 배신당할 값 없는 짝사랑으로 남겨질 것이다. 이미 자연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소유하고 인간과 생명체를 안아 주었고 품어주었기에 그 대-자연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고통스런 실천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으로의 귀의 감싸기는 바로 어린 아이-되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제2의 자연인 생명의 대지인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있는 어린 아이되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심정에서 자연과의 연애가 시작된다. 모든 것을 내 맡긴 어린 아이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자연에 내 맡겨야 한다.

올 해 여름은 정말 덥다. 할 일이 없어서 더울 시간이 많기도 하지만 이렇게 자신만을 책망하기에는 정말 '시간이 촉박하다'. 왜 그리 급한가. 하루빨리 이 지리하고 무더운 날씨와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며 시원한 계절을 기다리는 단순한 마음에서 뿐만은 아니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이상 기후와 기온으로 환경이 변화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식도 여기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르는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는 변화가 아니라 뭔가 이상한 꺼리침한 기다리고 싶지 않은 것들에 대한 기다림이기에 불안한 것이다. 초자연적인 예언이 여기에 무슨 역할과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아무도 예기치 못해도 우리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이기적인 겁탈에 대한 죄과를 톡톡히 맛보고 쓰라리게 경험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시간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인가. 이제 그 어떤 수고도 소용없게 되어버린 것인가.

아니다. 그럴 수 없고 그렇게 믿고 싶지도 않다. 간단하다. 인간의 도덕의 해체. 이것이 문제가 된다. 모든 것의 기초가 와 허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초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인간 자신과 세계의 황폐화된 모습이 그렇다. 여름은 더운 것이라는 상식적인 의식에 안주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 뼈저리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순간의 죄과가 점점더 이러한 위기들을 지구 곳곳에 깊숙히 공격하게 할 것이다.

자연의 질서는 이제는 더 이상 없다. 오로지 파괴된 인간의 도덕적 질서에 의해 조종되는 뒤 틀린 자연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자연이 서서히 아니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배후를 조종하는 무너지 인간의 양심만 남아 있을 뿐이다. 찢어진 양심. 그 한 조각을 붙들기를 원한다면. 지금 시간의 촉박함을 깨달아야 한다.

피서는 감각이다. 말 그대로 더위를 피하는 것. 피서라는 말이 있다면 이와 대립되는 날씨에서 피한도 있을 법하다. 그런데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 대한민국 민족에게 피한보다 피서가 더 피부에 와 닿는 이유는 이 피서라는 말에 얽힌 사연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인간의 표준 체온은 36도에서 37도 사이다. 만약 그 미만일 경우는 저체온증으로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이고 그 이상일 경우에도 고체온증으로 역시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몸의 저체온 증보다는 고체온증때문에 신체의 이상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몸의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하지만 인간 뿐만 아니라 다른 동식물들도 자신들의 기준 즉 삶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적당한 체온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연은 생명체가 그렇게 적당한 체온을 유지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해 준다. 즉 더위와 추위는 절대적이고 우선적으로 감각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계절 가운데 예컨대 고온현상이 지속되는 하절기다. 물론 체온을 유지하고 신체가 잘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 피복의 두께와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외부 기온에 대한 내부기온을 보존 유지하여 몸이 활동할 수 있게 하지만 자연으로부터 무방비로 쏟아져 내려오는 태양에 의한 고온을 막는데 생명들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적당한 가벼운 몸의 기온을 유지하거나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단순한 대책 외에도 일상의 방비대책을 세우곤 한다. 그래서 생긴 말이 피-서라는 말이 아닌가 싶다.

피서는 인간의 환경과도 밀접하게 관계있지만 또한 인간의 진보적인 개발과 기술과학의 발명 진보의 노력으로도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다. 이것은 외부자연환경에 대한 인간의 지혜와 지능의 힘이라고도 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 우리는 예컨대 기술과학문명이 오늘과 같이 발전하지 못하고 특히 서양기술문명이 수입되기 전까지만해도 피서란 우리의 일상 속에 머물러 있었다. 한 여름에 더우면 차가운 물을 마시거나 냉수마찰을 하거나 지하수의 차가운 물 속에 과일들을 두었다 먹거나 아니면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머물며 또는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방 안에서는 부채라든가 그 밖의 도구로 더위를 내 몰며 지냈다. 그리고 여름에 더욱 지혜로운 일은 무작정 덥다고 더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운동 즉 노동을 함으로 노동 이후의 시원한 물을 통해 더위를 한 방에 날려 버리는 일등이다. 움직이지 않는다고 더위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으로 더위를 몰아내는 바로 이열치열의 지혜가 이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과학기술이 정면으로 다가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더위와 함께 더위를 식히며 살았던 것이다. 그런데 기술로 인해 수 많은 생산품들이 생기고 이것을 위한 각종 시설 특히 공장들이 많아지면서 대도시의 물론이요 농촌 지역에도 과거와는 다른 기후변화를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자연발생적이라기보다 인공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생명체에 해로운 가스들이 배출되어 주변의 동식물과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자연과 환경의 변화는 기술적으로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켜서 우물이나 차가운 강물 대신 냉장고라는 기계가 발명되고 간단히 부채로 더위를 몰내내었던 시대에서 선풍기 에어컨디션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더운 기온을 막는 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기계들이 인간환경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 준다는 보장은 만족스럽지 못

한채 여기에는 도저히 자연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위협들, 생명과 자연환경파괴라는 엄청난 위기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여기에 인간의 감각은 더욱 맹렬하게 공격적이고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것에 익숙해져 버렸다. 피서라는 말은 이제 목가적이고 자연스러운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경쟁과 빼앗기라는 말로 돌변하고 말았다.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 느낌과 여유가 사실 피서의 본래적 의미를 더 해 주었다면 이제 피서라는 말은 수단의 발달을 통해서 보다 신속하게 현재의 일상 더운 일상을 떠나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문명의 발달은 인류 자신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행복감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점점 더 본래의 자연의 그림자 자연의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소원시키고 소외시키고 있다. 그 당사자는 사실 인간 자신인데 말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이러한 기술문명의 환경에 걸맞는 감각을 가지게 되고 자연적인 것은 일부로 인공적인 무더위로 인하여 정작 만들고 보존해야 할 자연환경 속으로 도피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그야말로 도피로서의 피서이다. 하지만 이러한 도피도 사실 감각이라는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 분명하다. 무작정 도망간다고 더위가 물러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과거 기술문명이 발달하기 전의 자연을 품는 의식과 정신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 현실과 환경에 눈을 돌리지 않고 미래만을 향해 가는 진보의식은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도 망치게 할 위험이 매우 크다. 여기에 우리 선조들이 안고 살던 환경과 지혜 그 단순한 그 느낌의 감각과 미학이야말로 예컨대 절제와 중단의 의식이야말로 오늘의 이러한 혼란스러운 피서전쟁을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는가!! 인간중심의 감각이 아니라 타자중심 자연중심의 감각이 부흥할 때 나 자신과 집단 자연우주의 질병을 치유될 것이 아닌가???

여름이 겨울이 되고 겨울이 여름이 되고 뒤죽박죽이 되고 자연스럽게. 하지만 이것이 비자연스럽게 된다면 정말 큰일 벌어지는 것이다. 누구도 앞서 막지 못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사후에 약방문이라는 말이 고어가 아니라 묵시록이다.

물은 생명이라는 말은 아주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듣고 보고 체험하고 있다. 그런데 "깨끗한 물은 인권"이라는 제창어를 보고 또한 물의 귀중함을 넘어서 물의 장엄함 그러다 물의 숭고함을 느끼는 것은 왜 일까. 강과 바다에 물은 아주 많이 있다. 그리고 심심하면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리어 대지와 바다를 적실뿐만 아니라, 넘쳐나게도 하고 오히려 이러한 잉여가 우리를 삼키는 공포자체로 다가오기도 한다. 그렇게 물을 넘치는 물이 무섭고 원망스럽고 저주할 정도로 미운 것은 우리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물은 없어서는 안 될 매우 필연적인 생명의 원소라는 사실이다.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기름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에너지의 원천 물이 없으면 정말 절대적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이다. 동식물만 움직이고 살아 있다는 생명체라고 권한을 뺏내서는 안된다. 움직이는 것 같지 않고 살아 있다고 뺏내지 않지만 정말 살아 있게 하고 살고 있는 물의 권한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물은 모든 살아 있는 곳에 살아 있는 것들을 위한 권한 그 자체이다. 저주해도 미워해도 원망해도 다시 사랑해야 하는 생명의 원소가 바로 물이다.

물의 권한은 그래서 차별받는 인간들에게 인권과도 비교되고 그 이상으로 반성할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하지만 물은 그 자체로 인권처럼 함성을 지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비명과 함성과 탄식을 하고 있다. 물 그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살아 계신 모든 생명체를 통한 그 생명체의 탄식과 고통의 비명을 통하여 물의 권한을 부르짖고 있다. 하지만 만물의 영장 주인이라고 잘난 척 하는 인간들은 너무나 소리가 커서 들리지 않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소리처럼 물의 권한 즉 물의 아픔과 고통 탄식을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인간의 무감각과 어리석음 무력감이 드러난다.

물은 강요하지도 억압하지도 않는다. 자신의 권한을 위해서. 다만 수 없이 물이 당할 때 즉 물의 권한을 강탈당할 때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인간의 카이로스적인 청취만이 남게 된다. 인간은 죽음의 카이로스에만 절망하거나 더욱 공포스런 위기를 감각해서는 안되고 바로 희망을 선사할 물의 다가움에 더욱 기다림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더욱 인내와 기다림 그 사이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상의 환경을 둘러보며 장엄한 물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우주적 인간, 삼위의 하나

자연은 우리 자신 보다 이전에 존재했고 더구나 더 크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을 자연의 척도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이다. 이와 동등하게 우리의 몸은 거주지와 같다. 자연은 이 속에서 깨닫게 된다. 세계의 빛은 우리의 눈으로 드러난다. 태초의 진동 소리가 우리의 귀를 자극한다. 바람이 우리의 피부를 자극한다. 생명을 주는 물은 우리의 목을 적시고, 땅의 무게는 다리를 지탱하게 한다. 중심에서 인간의 원래 것으로서 (생명의) 원소들이 사명을 다한다. 자연에 지체들이 모이자마자 인간은 한 가운데 자리한다. 거기에서 나와서 자연은 통전 속에서 살아가고 인식될 수 있다. 인간은 곧 영역의 총체로서 중심상징이 생긴다.

그래서 소우주와 대우주의 유령은 현실에서 당당하게 나타난다. 대우주에서 천체 우주가 끝없이 확장되고, 소우주에서 직접적으로 신뢰된 (구체적) 몸으로 초점이 맞추어진다. 자연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자연이 된다. 인간은 세계에 열려 있고, 자연은 인간으로 압축된다. 영혼이 몸에 해당된다면 인간은 세계에 해당한다. 인간과 자연은 형태상 하나의 종합을 이룬다. 존재의 전체가 집중되어 지각될 수 없다면, 우주로 향한 우리의 정신의 자유는 의미의 전조(前兆)를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고대의 자연철학과 의학에서 유래하는 이러한 상응체계는 교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들은 이러한 논리로부터 서양의 인간-우주학적 교육지식을 촉발시킬 수 있게 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의 본질적 형식세계는 그리스도교의 이중 중심성에서 접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창조의 매개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신의 자연과 구원의 계시).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로고스는 신, 세계 그리고 인간의 삼위일체의 내적 형상(Inbild)이다. 곧 신의 형상은 세상의 형상이며 인간의 형상이다.(독일어 번역문 중)

자연을 위한답시고 자연에 걸치장을 하거나 개발과 진보의 이름으로 자연을 위한답시고 자연을 자본주의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들이 자연다운 것이 아니라 반 자연다운 뿐만 아니라 생명적인 것이 아닌 반 생명적인 것이다. 그 결과는 결국 자연의 거짓 모습을 한 자연에 의해 수 많은 자연생명체들을 자연으로부터 추방하고 죽음의 자연 죽음의 생명만을 넘치게 하는 지옥스러운 지극히 지옥스러운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현상들 뿐만 아니라 현상 내부와 외부의 인간의 지질에도 못한 허무맹랑한 의식들로부터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리하여 모든 자연다움을 자연 안에서 그 외부에서 해친다.

물과 기름 도저히 합해질 수 없는 차이를 물과 기름같다고 한다. 도저히 합해지지 않지만 인간세계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본질적 근원의 힘이며 실체다. 그래서 고대의 철학자들은 물은 만물의 근원적 요소로 보았다. 기름은 인간이 발견해 낸 가장 중요하고 대단한 에너지이다. 현대세계가 발전하면 할 수록 이 기름 에너지의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기름은 땅 속에서 나온다. 아마도 지구생명체가 오랜 기간을 살아 오면서 수 많은 광식물들이 썩어서 땅 속으로 들어 가거나 지구의 깊숙이 여러 물체들이 합성되어 기름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기름을 검은 진주라고 부르고 있다. 현대기술과 문명이 발전하면 할 수록 이러한 소중대규모의 문명과 기술체들을 움직이는데 더욱 에너지가 필요하며 기름은 그 대표적인 막강한 힘 에너지이다. 대체에너지들이 개발되고 실험되고 있지만 아직도 만족할 만한 대체 에너지는 발견 발명 생산되지 못하고 있다.

그 만큼 기름 에너지는 지구 곳곳에서 특히 막강한 힘을 지닌 제 1세계의 산업국가에서 매우 남용착취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름 에너지가 현대과학기술문명을 계속 지켜 세울지 모르겠지만 이 에너지가 과연 영원 무궁하게 생산될까 하는 회의적 생각이 적지 않다.

멕시코 만의 대양 아래 기름유출은 단지 인위적 기술의 실수와 과오만이 아니라 인간의 무자비한 자연에너지 착취는 행복한 삶만이 아니라 자연 전체로 전체 생명을 위협하고 살생하는 자업자득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기름이 아무리 비싸고 귀하다하더라도 그리고 그것 없는 현대세계를 상상할 수조차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가치와 더불어 보존될 자연의 일부임을 깨달아야 한다. 물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흔하다라고 해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기름이 없어 다가올 비참보다 더 냉혹한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자국과 자기 편의 힘을 계속 증가하기 위해 에너지를 쏟아붓는 일에 몰두하기 보다 그 대신에 자연 물과 기름의 힘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으로서 물과 기름은 생명체에게 행복을 힘을 가져다 주기를 중단하고 지속적인 급작스런 전쟁과 같은 죽음의 공포로 가장 잔인하기도 한 인간을 계속 위협하고 말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기름이 없어도 전체 생명이 살아 날 수 있지만 물이 없이는 살아나지 못한다는 진리를 깨달자. 기름이 더 가치가 있다고 쫓다간 망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기득권을 공포로 조작하는 인간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만 살아야 겠지만 이러한 자기애는 자신과 더불어 지구 전체를 살리는데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자.

1. 노동절을 맞이하여: 신은 노동하기 때문에 자기원인이며, 절대적으로 무한한 실체이다. 신의 운동은 바로 창조적인 노동이다. 신은 노동을 통하여 생산하며 생산되게 한다. 사물은 신의 연장 속에서 무한한 노동을 신에 의하여 스스로 생산하고 창조한다. 노동은 신에게서 근원을 찾아야 하지만 모든 사물은 고유하고 무한한 연장 가운데서 다양한 신의 속성들과 양태들로 노동을 통하여 창조적인 생명을 생산한다. 이러한 창조적인 노동의 생산은 자기원인과 실체로서 신뿐만 아니라 신을 통하여 산출된 무한한 사물에게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신의 고유한 본질 절대적으로 무한한 본질적인 실체가 있다면 여기에서 생산된 무한한 사물 또한 고유한 본질과 실체를 가진다. 이것은 원인과 결과에 의하여 즉 실체와 자기원인으로서 신에 의하여 확증적이다.

2. 만약 신에게서 또는 생산된 사물에게서 나오는 노동이 결핍에 의한 욕망만을 채움으로 인하여 자신이 소외되거나 타자 사물을 소외되게 한다면 그것은 실체와 자기원인으로서 신의 노동에 이율배반적인 변용에 불과하며 이것은 참다운 노동도 참다운 창조적인 생산물도 될 수 없다. 이것은 부조리한 것이며 저항하고 극복하고 해체되고 파괴되어야 할 것 즉 실체와 자기원인으로서 신에게 포함된 속성과 양태들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참다운 사물도 원인과 결과에 의한 참다운 신도 인정되지 못하고 만다.

3. 노동자 전 태일 열사의 죽음은 이러한 의미와 맥락에서 단순한 자기희생을 넘어서 창조적인 노동과 생명을 되찾으려는 사건이며 구원의 몸짓인 것이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노동은 따라서 신성한 것이며 사물 곧 인간의 행위인 동시에 신의 행위인 것이다. 무조건 결핍의 욕망은 창조적인 노동으로 연결될 수 없지만, 창조적인 생명을 향한 욕망은 노동을 통하여 고통과 착취와 불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향유를 갖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치유와 구원의 사건이며 존재의 공유와 전유이다.

지구는 살아 있다. 땅 위에 생명을 통하여 땅 아래 생명을 통하여 살아 있다. 그리하여 생명의 운동이 시작과 끝을 반복하며 쉼과 노동을 반복하며 살아 있다. 그런데 아이티와 칠레 그리고 그 밖의 지진으로 생명의 운동이 죽음의 운동으로 돌변하고 있다. 반복적인 생명의 운동에 조화와 균형이 깨지면 생명 자체가 위협된다. 그운동은 죽음의 운동이 되고 만다. 전쟁과 자연의 생명에 대한 무 책임한 남용과 착취는 이러한 지진과 자연재해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다. 상생과 조화 타자 약자를 위한 헌신과 봉사과 사랑이 결여되고 방기되고 빈 영역이 될 때 인간사회 생명권도 지각변동이 불행 죽음의 불행을 발생시킨다. 너무 흔하게 이러한 불행은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자연처럼 갑작스럽게 죽음으로 덮치지 않을지라도 그 보다 더 잔인하고 처절하게 우리 인간을 목조이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

상대방을 적으로 몰고 약자를 착취와 지배와 대상을 낙인찍히는 의식이야말로 지진의 공포보다 더 할 수 있다. 약자는 좋은 편, 강자는 나쁜 편이라는 기계론적 사고가 아니지만, 봉사와 희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나의 너를 그러한 장소를 향한 생명의 운동이야말로 자연적인 인위적인 죽음의 운동을 멈추고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연 - 생명 - 역능 - 신인 - 평화 - 약자 - 채움 - 회복 - 치유

자연 - 죽음 - 권력 - 지배 - 전쟁 - 강자 - 비움 - 회복 - 치유

아이티의 자연은 저주받은 것인가. 왜 이리 약자들의 시간과 공간만 늘 이런 식으로 당해야만 하는가. 자연 너는 무심하지도 않느냐.라고 형이상학적인 항거만 메아리칠 뿐이다. 이 무고한 가엾은 순진한 민중시민국민 아이티를 버려느냐. 자연아 정말로. 이러한 무자비한 아이티의 현실 속에서 신이 없다고 종교의 희망이 없다고 말 할 수 있는데. 그 아무도 이 죽음과 고통 속에서 초월자를 의지할 힘이 남아 있지 않다. 너 무뚝뚝하게 모른 척하고 있는 자연. 정말 미구나. 왜 이 약한 빈자 약자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아야 하느냐? 자연 너 진정 아이티를 말아먹을려구 작정을 했느냐. 혹시라도. 너 자연을 악용한 강자들에 휩쓸려서. 자연

전 세계의 지구정부 독재자착취자들이여 만약 아이티를 정말 털 끝 만치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그만 두거라 자연. 자연을 자연 그대로 신의 섭리대로 움직이게 해방시켜라. 자유를 주어라.

그리고 이 희생과 죽음의 신호를 통해 강대국 제국에게 혼을 좀 내주라 너 자연아 자연아.

아이티 민중시민국민이 너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기득권 온갖 헤게모니를 작동시키고 폭력과 착취를 난무하는 전 세계의 미친놈들 미친제국들이 바로 너 자연을 저주받은 자연이 되게 했음을 만 천하에 알려라. 아이티 민중시민국민의 고통의 함성 죽음의 함성 기억들이 이 사실을 낱알이 알리리라. 선포하리라. 자연아 미안하다.

너를 원망하고 신을 무시하고 종교의 희망을 보지 못해.

자연아. 신들아 종교들아 들고 일어나라. 저 지배와 착취자들에게 그대로 아이티 민중시민국민이 당한 고통과 죽음과 희생을 그대로 물려 주라. 너 자연아.

삶과 죽음. 모든 생명 존재들은 삶과 죽음의 틈새에서 살아 숨쉬고 숨을 거둔다. 죽음의 바이러스가 점점 삶보다는 죽음으로 인간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감염자 확진자의 수가 늘고 죽음의 그림자들도 조금씩 점점 퍼지고 있다. 이제 기침조차 콧물조차도 흘리지 못할 정도로 죽음의 바이러스는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위에 아래에서 떠 돌고 있다.

일생 처음의 죽음의 유령에 대한 선전과 포고는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 본다. 이러한 죽음의 한 가운데서 그래도 돈을 버는 집단이 있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부자 대도시 부유층이 집중된 지역에 이 유령에 대한 증후가 더 농후한 것 같다. 반면에 빈자 슬럼가 빈곤층이 집중된 지역에서 이 유령은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인가.

아닌 것 같다. 아마도 죽음의 유령도 양극화의 현상에 얽매어 있다. 감염자 수가 많다는 것은 자신의 온갖 증상에 재빠르게 대처하고 삶의 우선권을 거머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감염자 수가 적게 나타난다는 것은 온갖 위협속에서도 여기에 방어의 무력한 약자들이 부지기수로 있기 때문이다. 몇 십만원의 돈이라면 당장 생을 이끌 수 있는 막대한 자본. 그래서 이들은 천천히 일상을 일탈하지 못하고 죽음의 유령을 맞을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누가 이 죽음의 유령을 내 쫓고 목숨을 지켜낼 수 있을까. 바로 자본을 충분히 소유한 자들에게 일 것이다. 죽음의 유령은 하지만 빈자와 부자를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더 냉혹하게 자본의 논리로 약자들을 사멸하려고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죽음의 그림자들 드리울지도 모른다.

국가는 국민을 수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여기에 단 한사람도 예외란 있을 수 없다.

바로 지금 이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일상의 삶을 되 찾기 위해 국가는 검진증상 증후를 가진 모든 경제적 문화적 빈자들에게 무조건 무료로 검진 항바이러스 등 처방/완치의 약을 제공해야 한다. 바로 무조건 국가가 여기에 침묵한다면 죽음의 유령은 국가 전체를 죽음으로 점점 더 떨게 할 것이다.

자연 수 많은 자연의 자연들은 생산하고 생산된다. 먹음과 먹힘의 사슬 속에서 슬픔과 고통을 자아낼 수도 있지만. 인간이 인간을 먹고 먹히는 것 만큼 잔인할까. 자연은 말 그대로 그러한 예측 불허의 또는 예측이 허하는 우연과 필연의 틈새를 생산과 생산됨으로 채우고 비우고 만든다. 그러면서 먹은 자연은 더 큰 자연 속에 잠들며 먹힌 자연들을 생산한다. 먹힌 자연은 더 작은 자연 속으로 잠들며 먹은 자연들을 생산하게 한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이 자연이 아니라, 제2의 자연, 자연의 사생아다. 이 자연들의 먹음과 먹힘의 규범을 벗어나는 한 영원한 사생아 제2의 자연이다. 인간 자연은 더욱이 자기 자신도 모자라서 거룩하고 장엄한 자연들을 박살내고 있다. 끝장낼때까지. 여기에 이러한 파렴치한 작태들 속에 또한 전근대 근대 탈 현대에 깊은 구멍을 흠을 더욱 파고 들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제2의 자연 인간은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흠파기를 동시에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산산조각나면서도 여전히 거대하고 장엄한 자연도 함께 산산조각내고 있다.

이러한 자연조각내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철저히 목격되고 있다. 그러면서 인간은 자연의 거대한 자연의 힘에 옆드리지 않고 오히려 야만과 겁탈로 자연 스스로에게 인간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쓰라린 알리바이로 남는다. 그렇지만 자연의 감시카메라는 인간의 야만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녹화해 둔다. 다만 인간에게 보이지 않을 뿐이다. 아니 인간은 거울을 통하여서도 알리바이 자신을 남겨둘 뿐이다. 이제 시간의 끝이고 누군가 가장 절대적인 힘에 모든 운명을 떠 넘기려는 인간의 작난만 남아 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인간 제2의 자연 인간은 지칠줄 모르고 자신의 몸이 산산조각날 때까지 장엄한 자연과 거룩한 자연도 산산조각낼 욕망만 채우고 있다. 함께 죽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자연 전체에 뒤 집어씌우는 인간. 하지만 잊지 말라 자연은 그 인간을 그 어느 자연들보다 가장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응징과 형벌로써 자연에 물히게 할 것이라고.

인간이 땅을 떠난다면 수직으로도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 생명체가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더욱 이러한 떠남을 일방적이고 예기적이고 수평적으로도 생각되고 이해된다. 그 전에 왜 인간이 땅을 떠나는가 생각한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식물들이 거의 생명의 연장과 지속을 위하여 땅에서 땅으로 땅에서 물로 땅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이행하는 것과는 달리 말이다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독립하고 다시 살고 죽는다. 연적이고 필연적으로 반복한다. 인간은 땅을 떠나면 우선 현대인은 도시로의 진입을 떠올린다. 도시는 기술문명으로 도색되어 있기에 땅이 숨어버리거나 사라진지 오래다. 그래서 땅을 떠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술문명의 도시로의 이동이다. 인간은 또 땅을 떠난다. 땅을 떠나면 하늘이다. 인간은 하늘로 자주 날아가려고 한다. 그리고 발을 땅에서 뛰어 놓고 산다. 점점 더 그리고 이것이 마치 더욱 행복한 것처럼 느끼게도 한다. 땅을 떠난다는 것은 어쨌든 자연의 모태 자궁인 생명을 떠난다는 말과도 흡사하다.

우리는 땅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더욱 세련된 인간화가 되기 위하여라고 하거나 기술문명인으로서 인간이 되기 위함이라고 핑계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언제 어떤 상황 아래서도 하늘 아래 있기에 땅을 벗어날 수 없다. 다만 땅을 벗어났다고 말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믿음과 생각 상상뿐이다.

하지만 인간이 생명이 땅을 멀리 하면 멀리 할 수록 행복해진다는 것은 찰나와 착각뿐이다. 시간이 오래 연장된다고해도 그것은 아주 짧은 인간의 자만에 불과하다. 아무리 높이 하늘로 올라가도 그 존재 인간은 땅으로 내려와야 한다. 이것이 신이 섭리 아래 자연의 작동이다. 그런데 그 땅을 너무 멀리 너무 오래 떨어져 사는 인간은 육감적으로 정적으로 행복한것만이 아니고 정적으로 오히려 처참하게 불행한 것이다.

요즘 도시문명이 주는 편리함과 속도의 행복에 지쳐서 다시 땅으로 귀환하는 인간들이 조금씩 늘어 간다. 땅을 멀리하면 환상의 도시들이 춤을 추지만 정작 그 곳에 도착하고 수 많은 욕망을 채우고 나면 땅이 그리워지는 것이다. 도시의 사기와 정복과 지배와 착취와 거짓과 죽음에 찌들지 않은 곳. 그 곳이 바로 정직과 순수와 평화와 쉽고 나눔이 있는 땅이다. 그래서 기술문명의 바닥은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지만 땅의 냄새는 생명 생기를 마시도록 한다.

지구인간의 수가 늘고 폭발지경이지만 살 아야 하는 땅이 부족해서도 먹을 것이 너무 부족해서도 이 땅의 위기가 닥쳐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먹지도 못하고 더 살 수 없으면서도 부동켜 안고 썩어질 때 까지 놓지 않은 인간들의 야만적 욕망만이 있기 때문이다. 마천루와 같은 거대한 인간의 집들은 존재의 집들이 아니라 이 장엄한 땅 이 위대한 생명의 땅에 대한 죄 많은 인간들의 두려움의 산물일지도 모른다. 행복과 향유의 환호성만 가득한 것이 아니다 그곳에는. 땅을 살고 숨쉬어야할 권한조차도 빼앗긴 자들의 잉여들만이 농락당할 뿐이다. 그래서 겁없이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다. 땅과 점점 멀리. 하늘로.

인간이 땅을 버리거나 떠나는 삶은 그래서 메마른 생명없는 삶이며 향락에 불과할. 땅에 다시 귀환하면 죽음도 음모와 사기와 착취와 불평등도 끝없는 고통의 노동도 사라진다. 그 대신 땅을 골고루 나눔으로 저마다 적당한 땅을 살며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진정한 생명의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땅을 떠나면 행복해지거나 하늘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임을 자각하자.

자연이 자연을 습격하기 과연 가능할까. 그렇다. 가능하다. 아주 저철하고 죽음처럼 가능하다. 땅과 하늘은 남녀의 궁합과 하나됨처럼 원래 에너지가 합하고 조화되고 평화와 생산 창조 그리고 안식이 깃드는 곳이다. 그런데 하늘과 땅이 이러한 자연의 조화와 창조의 원리와 현상에서 벗어나게되면 그것은 하늘은 하늘이 아니고 땅은 땅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부조화와 자기확인의 분열은 곧 합하는 대신 갈등이, 조화와 평화 대신 투쟁과 모순이 생산과 창조와 안식 대신에 파괴와 소멸과 끝 없는 고통의 나락만이 깃들게 되는 것이다. 자연과 제2의 자연인 인간은 이러한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살고 살리며 지속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자연은 자연을 서로 습격하고 파괴하고 사라지고 어둠의 세계만 지속된다. 그러면 평온의 무가 아닌 격렬하고 무한대의 어둠 속에서 아픔과 소멸과 죽음의 공포와 메아리가 연장된다. 자연을 자연을 제1 제2...의 자연을 사랑하기에 내버려두지 않고 감싸안고 합하고 조화되고 평화생산 창조 그리고 안식을 누리며 그러는 동안 습격당해 입은 상처가 있다면 치유하고 구원시킨다. 그래서 생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게 하고 하늘과 땅의 원리로 생명은 영원하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생명의 원리에 가까워서 또는 멀리서 죽음의 원리가 자연들을 습격하고 파괴하고 불태운다. 죽음의 원리는 인간에게는 이기심, 자기애, 도덕불감증, 지칠줄 모르는 성취감과 승리감, 더구나 타자를 파괴하고조차 악으로 깡으로 살아남으려는 죽음의 심부름꾼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예컨대 이러한 도발적이고 악마적인 작태는 자연 자신의 자연을 파괴하고 멸절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타자로서의 자연들 결국은 우리를 감싸고 생산하게 하고 조화와 평화와 생명과 안식을 선물로 주는 제1의 자연 하늘과 땅의 원리를 파괴시키는 원인들을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남는 것은 자신과 자신들의 집단의 파괴 그리고 이러한 파괴를 강해하게 하는 절대자연에 대한 명예훼손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자연의 자연 습격은 자연발생적이기도 운명론적이기도 하늘과 땅의 뜻과도 거리가 거리가 너무도 멀고 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자연의 죽음의 습격은 바로 파괴적이고 착취를 일삼은 제2의 자연 인간을 통해서 작동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망각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자연들의 상처와 치유는 바로 그 자연 인간의 상처를 치유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상처는 치유되어야 하지만 그 상처 없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2의 자연 인간은 절대 자연을 통해서 아주 아주 고통스럽게 빠져리게 가슴이 찡하도록 의식화 성찰 생성해야 한다.

요즘 전 세계를 두려움으로 떨게하는 거대한 유행들이 있다. 그 하나는 정치경제적 지구화로 인한 세계의 민중을 착취와 억압으로 고통당하고 죽게하는 자본주의유행이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신종플루엔자라는 유행성 전염성 변이 바이러스다. 독일에서 대중문화예절가운데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딱히 예를 들자면 재채기와 코풀기문화가 아닌 듯 싶다. 재채기는 코 안의 신경이 자극을 받아 코로 숨을 내뿜는 것(다음국어사전)이지만 그 코 안에 무지의 물질이 자극을 줌으로써 코로 잡탕 숨을 내 쉬는 것이다. 그런데 재채기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시원함을 본능적으로 맞볼 수도 있지만 코에서 나오는 잡물바이러스로 인해서 주변과 주변생물체에게 악영향 즉 병원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흔한 감기는 물론이요 독일과 유럽의 생명을 쓸고 간 페스트도 이 재채기로 전염된 것이다. 그래서 독일인들은 재채기를 하면 무조건 Gesundheit!!!라고 인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의 개인적 집단적인 장소와 시간에서 재채기를 금할 수 밖에 없고 코구멍을 막아 재채기로 인한 이 물질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 왜 불시의 바이러스가 주변과 생명체에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재채기로 인한 이러한 직접적인 대량 사망의 기억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기회만 주어진다면 재채기를 아주 통쾌하게 하곤 한다. 하지만 조심하라.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전염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다른 한 가지는 독일인들의 코풀기이다. 이들은 우리 동양인보다 코가 길고 넓다. 자연히 코 구멍도 크다. 특히 독일의 날씨는 늘 서늘하기 일쑤여서 언제나 우리에게 감기조심을 알린다. 독일인들인 변덕스런 이 서늘한 기온때문에 늘 손수건이 아니라 코 수건을 준비하고 다닌다. 아니면 대량의 휴지를 준비하던지. 그래서 그 커다란 코에서 흘러 나오는 온갖 잡수물덩어리를 코로 내 뱉는다. 그런데 얼마나 시원하겠는가. 그 큰 구멍에서 콧물을 내 보내니. 우리는 비슷하지만 이들과 비교할 수 없다. 마치 피리나 뺨드소리처럼 크게 도서관 식당 예배당 사무실 공공장소에서 이들의 코푸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하지만 이들의 문화상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라. 우리의 문화와는 대조적이다.

그런데 지금 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모두 이 새로운 바이러스유행으로 공포에 떨고 있다. 누가 시작했는가. 혹시 외계인은 아닌가? 아니면 세계정부의 인구밀도조절을 위한 무자비한 음모란 말인가? 우리는 수 많은 재채기와 코풀기로 자신의 쾌감을 만끽하고 있는 동안에 수 많은 바이러스들이 외부로 분출되고 자신은 물론 타자생명체까지도 생존의 위협을 가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 바이러스 유행은 외부가 아니라 정작 자신의 외부에서 무형유행으로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수 많은 바이러스 유행이 세계를 위협하고 죽음으로 몰아갈려고 해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인들처럼 생리적 쾌감을 금욕하고 타자를 살리는 자연의 생명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 자연이 우리를 역습하기 전에 우리는 자연에 겸허히 순응하며 살자.

신은 일을 한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지구 우주가 존재하는 한 다시 말해 끝 없는 생성과 변화 속에서 신은 일을 할 것이다. 신의 이미지로 만들어지거나 생성된 인간과 피조물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한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던간에 인간과 피조물은 일한다. 신이 일하는 목적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나 생성된 피조물이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코스모스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신은 이렇게 일한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신은 그 무엇에 의해서도 제지되거나 방해받지 않고 일할 것이다. 그리하여 생성과 변화를 반복하면서 수 없이 다양한 생명들이 가로지를 것이다. 생명이 생명을 통해서 그리할 것이다.

신이 만든 또는 생성시킨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 그래도 가장 진보적인 것이다. 신의 이미지를 가장 많이 닮은 것 같다는 착각이 지배적이다. 인간도 신처럼 일을 한다. 그리고 변화와 생성을 하면서 생명의 선들을 가로지른다. 신은 일을 하면서 그 무엇에 의해 제지당하지 않고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행과 불행 선과 악이라는 매개물들이 필요하다. 만약 신이 이러한 불행과 행복 또는 선과 악에 의해서 제지당하거나 중단된다면 그 것은 신의 일들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신의 일을 가장한 변장한 인간과 피조물들의 일들일 것이다.

이와 달리 한편으로 인간들은 신처럼 일하고 제지당하지 않는 것 같지만 선과 악 행복과 불행으로 회자정리되고 만감이교차 되기 때문에 필요악으로 사랑과 더불어 미움이 정의와 더불어 불의가 지배와 더불어 착취가 행복과 나란히 불행이 닥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들은 인간이 신처럼 완전하지 않거나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의 모습을 점점더 멀리는 매개물들의 영향 때문이다. 그리하여 어떤 인간들은 일을 너무 많이 함으로 초과 인간의 형태를 갖춘 비만적 인간들로 돌변한다. 동시에 어떤 인간들은 일이 너무 적기 때문에 결여 인간의 형태를 갖춘 부족한 인간들로 남는다.

일 많이 하는 인간은 물질적 궁핍은 채울 수 있고 초과 잉여의 향락을 누릴 수 있지만 정신은 여전히 결핍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다. 또한 일이 적은 인간은 이와 반대로 물질적 궁핍으로 인해서 표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결핍도 엄습하게 됨으로 이중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 두 종류의 인간은 모두 신의 형상을 가진 일하는 존재가 아니다. 일이 많은 적은 모두 신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자연 우주 속에서 인간은 신의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일을 못하거나 일이 전혀 할 수 없는 인간들의 자연을 힘입은 신을 힘입은 저항이 있어야 한다. 끝 없는 저항의 선을 가로지르며 자신들을 맞서 있는 일 많은 인간들을 구멍에서 끌어 내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 많은 인간들은 이들 일 없는 인간들을 끌어 안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을 구멍에서 구출하는 그 몸짓 손짓을 거부하지 말고 인정하며 용납하며 구 어둠에서 헤쳐나오는 것이다. 마치 타자를 통해서 자신을 구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사건에서 모든 인간의 신의 일에 동참할 수 있고 비로서 인간들은 일을 하며 신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불행과 행복 선과 악 지배와 착취라는 매개는 사라져버릴 것이다. 매개가 없는 변화와 생성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 신의 일을 하면서 구출되고 구출할 것이다.

이른바 철학자의 그리스도 베네딕토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사과를 매우 좋아한다. 나 뿐만 아니라,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사과를 좋아한다.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가 사과다. 사과는 계절과 지역의 환경에 따라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맛을 내는 정말 보암직 하고 먹음직한 과일이다.

사과라는 과일은 맛도 좋다. 달기도하고 시기도하고 달콤하고 다양한 맛을 낸다. 껍질채 먹기도 하고 껍질을 베어내고 먹기도한다.

사과는 맛으로도 일품이지만 당장의 허기를 채워주는 영양식으로도 손꼽힌다.

그런데 이 사과의 역사를 태초로 끌고 간다면 좀 생각이 달라질 때도 있다. 인간에게 형벌을 가져다 준 바로 그 먹이감이 사과라면 그렇다. 그래서 태초의 인간 남자와 여자와 사과는 인연/악연이 매우 깊은 것이다. 남자의 목젓뼈를 아담스 애플이라고 한다. 여자는 사단의 유혹에 미련없이 빠졌지만 남자는 입에 들어가 목에 사과가 걸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만 사과와의 질긴 인연이 계속되고 있다. 아무리 인간의 조상들과 사과와의 인연이 악연으로 남아 있다고 해도 사과는 여전히 보암직 하고 먹음직하다. 그래서 나도 수 많은 과일 가운데 사과를 제일 좋아한다. 그래서 먹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맛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안에 자리잡은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사과열매를 따 먹는다. 그리고 일단 식육과 탐욕을 채운 후에 그리고 내 몸안에서 소화되어 에너지로 변하고 그 나머지는 불순물로 다시 배출 된 이후, 사과의 기억이 내 의식에 자리잡는다. 그 기억은 죄스러움이다. 미안한 마음 타자의 소유물에 대한 금기를 깬 파기된 결과에 대한 자책과 불안감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식은 또 기억속으로 자리잡는다.

그런데 왜 철학자의 그리스도 스피노자는 사과나무를 심어야한다고 했는가. 단순히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열매를 따 먹고 싶은 욕망의 끝 없는 선 가운데 있기 때문일까.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이야기는 신의 형상 신의 의식으로 심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신비로운 욕망/행위가 아니던가. 창조물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피조물 자연의 일부인 인간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자신을 비롯한 수 많은 타자들로 하여금 태초의 인간들로 되 돌아가 보려는 것이 아닌가. 누가 그 사과를 따 먹을 것이며, 누가 그 사과를 따 먹지 못하고 주저할 것인가. 치아가 굳건하게 발전된 인간들이라면 거의 모두가 이 사과먹는 행위에 참여하고말 것이다.

그래서 선과 악을 결국 알게 된다는 사실. 인간 남녀는 노동하고 고통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 그렇지 이러한 수고와 더불어 신은 인간을 영영 벌하지지만 앎시키고 여전히 온 우주 만물과 함께 인간을 사랑한다는 사실. 이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고 공유/전유하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아니 당장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태초의 시대 태초의 인간의 의식을 가지며 오늘도 내일도 사과나무를 심고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열매를 따 잡습는다.

“존재와 시간”은 뿔래야 뿔 수 없는 종속, 평등의 관계이다. 왜 그런가. 존재라는 생명은 시간에 의해서 태어나고 살고 죽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은 존재 없이 존재할 수 없는 무의미한 또 다른 존재이다. 존재와 시간은 서로를 채우고 비움으로 서로의 존재와 시간을 확인하고 지속하고 소멸하고 생성한다. 그래서 시간과 존재 존재와 시간은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을 교차시킨다.

전철을 타고 왔다갔다하는 일상의 인간 존재들이 많다. 이들은 시간 속에서 존재를 확인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탄식한다. 이러한 시간과 존재가 공간을 통해서 흘러가면서 존재는 넓게 되고 시간도 넓게 된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가 오래 지속하면 할수록 그 존재들은 존재 자신과 공간에서 힘이 약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들은 시간과 공간에서 영원한 시간과 공간을 경험하며 산다.

하지만 자본은 존재들을 책임감 있게 존재와 시간을 공간에서 보호하지 못한다. 그래서 존재의 시간은 ‘무방비’가 되고 만다. 자본은 계속 존재의 시간, 시간의 존재를 더욱 잔이하게 무방비로 내버려 둔다. 그러면 존재는 다시 마지막 힘이 다할 때까지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간다. 자본이 존재를 지켜주는 친구가 아니라 존재를 파괴하고 시간과 공간을 지워버리는 점령자가 되고 만다.

이제 남은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또 다시 반복적으로 ‘생의 의지’를 가지고 존재는 시간과 공간 속을 가로지르는 것이다. 그리고 아낌없이 자본에 맞서는 것이다. 자본이 약탈자가 아니라 보호자로 되돌아 올 때까지. 끊임없이 삶을 향해서 던지고 던져지는 존재로서 시간과 공간을 사는 것이다.

태초에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욕망이 아닐까. 다채롭고 다양한 욕망과 욕망의 선들이 있었다고. 욕망 다음에는? 죽음과 생명이 탄생했다. 신은 욕망을 통해서 우주를 생성하게 했다. 그리고 신이 만든 우주는 끝없는 욕망으로 생명과 죽음의 쌍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자연이다. 해방의 자연철학자 스피노자가 말했듯이 생산하고 생산당하는 자연이 우리의 환경이다.

인간은 하지만 신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신의 계율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다른 이면에 서로의 계율을 파기하며 다른 욕망을 생산하고 생산당하고 있다. 자연의 지배 아래서 인간은 인간 자신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에 행복과 더불어 불행이 닥치고 만다. 신은 이성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이성을 더 잘 다스리라고 정의와 사랑의 믿음을 아무 대가 없이 인간에게 주지만, 인간은 이것조차도 배반하고 스스로 배반당한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 이 모든 생명체들을 잘 관리하는 생명의 자연과의 약속과 그 질서조차도 파기하고 만다. 오늘의 '이후의 시대' 에도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신과의 계율/약속은 물론 이요 자기 자신과의 약속도 파기하고 결국 불행을 맞이한다. 그래서 더 많이 욕망하면 할수록 더욱 많은 행복이 아니라 더욱 많은 불행의 경험을 자신과 타자 속에서 목격한다. 이제 모든 피조물의 탄식이 더욱 거세게 진행되는 것 같다. 그렇다고 끝은 아니다. 진정한 끝은 오직 신만이 아시고 행하시기에 그렇다. 지금 이 순간, 오로지 모든 욕망의 중단과 침묵만이 신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자연과 생명을 조금씩이나마 회복할 것 같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중단과 침묵의 연습/습관/문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더운 추석도 지났다
서늘한 가을이 감싼다
서늘한 추석도 지났다
마음이 시원 섭섭하다
하지만 날씨는 변덕장이다
일교차가 커지는가 싶더니
서늘한 아침과 저녁을 빼곤
한 낮에는 아직도 여름이 저절로 다

내 안의 여름을 정리하고
또 내 밖의 여름을 정리하러 간다
그 곳은 이천에 있는 테르마메덴이는 온천장이다
피부의 불순물을 제거하니 마음도 시원하고 깨끗해 진다
야외 온천장에는 가족주의를 떠 올리게 한다
많은 아이들, 부모들이 서로 서로 물놀이를 즐긴다
이러한 즐거움의 시간 속에서 여름은 간다.
슬픔과 기쁨의 시간 속으로 여름은 간다.

그리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시간이 환영받는다
가을이라는 시간
슬픔과 기쁨을 이겨내고
성숙해지며 성숙해지도록 돕고 도움을 받는
계절.
여름은 가고 이제 그 자리에
가을이 오고 있다.
모든 것을 거부하지 말고 즐기며 견뎌야 할
계절 가을이다

굴욕적인 한미FTA와 쇠고기외교로 인해서 국가/국민이 흔들리고 있다. 마지막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촛불로 양상한 몸으로 표현되고 있다. 산유국과 강대국의 조작과 횡포로 인해 유가는 폭등하고 이로 인해 가난한 나라와 서민의 골 깊은 고통은 더해 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는 미덕"이라고 했지만 그것인 과거의 향유이다. 이제는 소비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극악무도한 강대국과 가진자의 살인적인 폭력에 불과하다고 들려온다. 정부와 국가는 위기의 시대에 절약을 강조하고 내세우지만 약자와 빈자에게 그것은 곧 바로 '사형선고'와 다를바 없다. 약자와 빈자의 소비는 향유가 아니라 남은 목숨을 부지하는 마지막 저항일지도 모른다. 강자와 부자의 향유는 이와 반대로 자신의 생존과 무관할지도 모른 향락을 위한 탈 영토화한 값싼 사치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물질적/정신적 붕괴의 위기시대에 권력체제는 애꿎은 서민의 목만 조르고 있다. 마지막 숨소리조차 들리지 못하도록 목을 점점 조이고 있다. 여기에 장작불에 기름을 부으듯 강자/가진자는 가세하고 있다. 정신적 강자/가진자든 물질적 강자/가진자든 마찬가지다. 이들은 마치 탄 세상에 사는듯 하다. 마치 구름위에서 향락을 즐기는 자들과도 같다. 그리고 계속 모든 욕망을 앞세우 탐을 쌓고 있다. 결국 무더질 수밖에 없는 저주의 탐인 욕망의 탐만을 쌓고 있을 뿐이다.

범역적/지역적으로 불어 닥치는 이러한 죽음의 바람을 막고 잠잠하게 할 방법 가운데 가장 설득력있고 현실적인 대안은, 바로 강자와 가진자의 '들숨/날숨'의 변증법이다. 자신의 몸과 생명의 욕망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지구에 살아 숨쉬는 청정한 공기를 마시고 자신 안에 욕된 쓰레기를 내 뱉는 것이 들숨날숨의 변증법이 아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굴욕적일지도 모를 들숨/날숨의 변증법으로 이 세상의 쓰레기 같은 불순물을 실컷 마시면서 내 안에 간직한 욕망의 덩어리를 풀어낸 맑고 깨끗한 순수 청정한 공기를 다시 이 세상을 위해서 반환하는 것이다. 욕망의 덩어리인 자본과 물질/정신을 순전하게 걸러서 다시 원 주인인 자연으로 되 돌려 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 거룩한 행위를 누가 해야 할까. 바로 강자/가진자가 해야 하는 것이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원 주인인 자연에 되 돌려 주는 이 행위만이 오늘의 난국을 풀 수 있는 첫 걸음이다.

그렇게 될 때 모든 정신적 물질적 향유는 어디에 특정한 어디에 중심부에 머무르지 못하고 유목행위를 하면서 필요한 곳에 평등하게 정확하게 말해서 약자/빈자의 그 자리에 배치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행복을 구멍 속에 가두어두지 않고 매끄럽게 정의의 물결을 가로지르면서 더욱 그 향유가 필요한 자리에 배치될 것이다. 들숨/날숨의 변증법은 중심과 특권을 거부하면서 역설적으로 '반' 변증법적 원리에 의해서 또 다시 생명을 나누며 이성과 감성을 나누며 이렇게 가로지를 것이다. 남음을 모자라게 하고 모자람을 남게하는 이러한 행위가 바로 오늘의 물질/정신적 위기를 극복하기위한 한 가지 지혜로 떠 오를 수 있기를 신/하나님께 기도한다.

2008년 5월 나는 저항과 희망을 불러 일으키는 유-토피아를 가슴에서 밖으로 펼치려는 꿈에 가득했다. 그런데 또 인간이 전쟁과 거대한 폭력 이에 맞선 신의 저항이 미얀마에 "사이클론"으로 그리고 중국 쓰촨성에 거대한 지진으로 무고한 인민/민중의 죽음을 삼키고 평생을 가난과 고통 속에 살게 만들었다. 이러한 엄청난 재난을 자연적이라고 그냥 간단히 넘겨야 할까. 아니면 자의하듯 인간의 도덕적인 죄의식을 성찰하는 값싼 성찰들을 나열하기라도 할까. 하지만 죽음사람만이 자연과 인간의 무자비함을 기억할 뿐이다. 그 몸쓸 냉정함 무감각함을 말 없이 죽음으로 고발할 뿐이다. 땅과 하늘만이 이 진실을 용납해 주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200년 전 니체의 인간의 비열함과 고발을 신의 대리죽음을 통해서와 마찬가지로 인간과 자연의 죽음을 통해서 고발했다. 우리는 니체보다 그 시대보다 더 비열하고 잔혹한 죽음을 목격하면서 또 다시 동정과 연민을 반복한다. 하지만 신이 죽었다고 인간이 죽었다고 그 누가 외쳐질 것인가. 오히려 그와 반대로 인간은 자연을 보루로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피해하려고 애쓰고 있을 뿐이다. 이제 지구적 죽음은 시장경제를 통해서 또는 전쟁무기를 통해서 인간과 자연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인간을 죽이고 자연을 파괴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목격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제 3세계 인민은 남은 목숨조차도 부지하기 힘든 그러한 절박한 시간이 도래하였다. 동시에 3세계 인민은 여전히 지역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구적으로 심지어는 제1세계의 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고통당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그 잘난 양심을 조금이라도 간직한 자들에게 슬프게 메아리친다.

자연은 이제 무조건 3세계인민만을 죽음의 타깃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이제 폭력과 죽음을 서슴치 않는 저 1세계의 세계정부들도 그러한 죽음의 타깃이 서서히 되어 가고 있다. 이 사실을 세계정부들은 깨달아야 한다. 그래도 니체 덕에 "신이 죽었다"고 외쳐됨으로 우리는 그래도 이 모든 슬픔을 감내하고 극복하고 그리고 살아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으로 니체의 선언을 깨달은 우리들은 이렇게 외쳐야 한다. "인간이 죽었다"고 무고한 인민의 죽음에 대한 애가가 아니라, 바로 허의의식에 가득한 지칠줄 모르고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저 인간들에게 외치는 이 시대 예언자적 선언으로서. '인간의 죽음'을 외쳐야 할 시간이다.

삶이라. 죽음이라. 딱히 무엇이라고 말 할 수 없는 엄숙. 장엄. 처절함. 비참함. 온갖 수식어와 설명으로도 부족한 두 단어다.

삶이란 긍정이고 하지만 긍정일 수만도 없는 것. 그것이 비참, 처절함 그리고 고통일 때 그렇다. 부대의 영성도 다 채울 수 없을 것 같은.

죽음이란. 그렇다고 부정할 수만 없는 것. 내세를 기다리며 희망하는 것도 그렇지만. 죽음 너머에 삶이 있다는 죽음을 견딜 때에야 비로소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삶과 죽음은 자연 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또는 옆에서 친근하게 가혹하게 우리를 엄습하고 다가온다.

부정의 부정을 넘어서 삶과 죽음을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삶과 죽음을 알 수 있을까. 모른다/안다. 타자의 삶과 죽음을 응시하면서 우리는 삶과 죽음을 노래하고 탄식한다. 키에르케고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은 Sorge라고 했지만 그의 단독의 실존주의를 넘어서 우리는 정작 죽음에 이르는 것이 절망에 이르는 것이 병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현대인들은 수 많은 병으로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다. 일상의 감기에서 온갖 전염병들 환락과 잉여로 인한 병들이 즐비하기도 하고 부족함과 빈곤으로 인한 병들도 더욱 즐비하다. 이러한 무참한 병들로 인해 우리는 절망하고 그 절망은 죽음을 더욱 가까이 부르기도 한다. 순간의 애도와 동참 연민의 눈물과 엄숙이 타자가 아닌 타자를 통해서 나에게 엄습하는 죽음을 거절하는 표시라면 그리고 종말에 자신의 죽음을 거울을 보듯 예견하는 것이라면. 더욱 우리는 온 몸에서 흘러나오는 비참과 흥분의 액체를 쏟아 부어야 한다.

"삶과 죽음"이라는 강의를 두 학기 정도 한 적이 있다. 아무리 삶을 긍정하고 호소하더라도 죽음은 나 자신에게서 또는 타자에게서 우리를 목도하게 한다. 아무리 죽음을 강조하더라도 우리 앞에 펼쳐진 삶 속에 죽음은 끼어들 수 없다. 오죽하면 니체는 "신의 죽음"까지 외쳐되었을까. 인간의 삶과 죽음도 모자라 신에게 죽음을 떠 맡기는 우리의 '초인의 철학자'를 보라. 삶이 소중하기에 죽음도 가볍게 우습게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는 것. 삶의 존재가 있다면 죽음의 비/존재도 장엄하다는 사실. 우리가 제대로 알까. '지속의 기술'이 있다면 '중/단의 기술'도 있다는 것. 우리가 제대로 알까. 종교가 아무리 현실을 가볍게 여긴다고 해도 그래서 그 현실을 미래로 투사시켜 신앙인을 안심시킨다고 해도 어쩔수 없이 냉혹하게 다가오는 현실. 아무도 거부할 수 없다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무시할 수 없고. 죽음을 그 언젠가 맞이하기 위해서 또한 삶을 모셔야 하는 것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반복되는 이러한 삶과 죽음의 변증법. 나와 타자에게서 상호주체적인 사건으로 다가오는 그것.

삶을 맞이하며 웃어야 하기도 하고 울어야 하기도 하고 죽음을 맞이하며 울어야 하기도 하고 웃어야 하기도 하는 존재. 인간과 모든 생명체가 공유/전유해야 할 바로 그것이다. 즐거움의 삶과 죽음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나와 너의 우리 멀리 있는 우리 나와 너 그/녀의 타자성을 그 삶과 죽음의 존엄을 찾고 가꾸고 살려야 하는 것이다. 삶과 죽음의 델레야 뿔 수 없는 손바닥의 양면이다. 나와 우리의 삶과 죽음뿐만 아니라 그/녀의 우리 타자와 그것은 공유/전유할 때 비로서 그 아름다움이 비추게 된다. 나와 너와 그/녀의 우리 타자의 삶이 죽음이 비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기에 삶과 죽음을 나누어야 한다. 내 것이 네것이 되고, 네 것이 내 것이 되고, 그/녀의 것 타자의 것이 내 것이 네것이 될 때까지. 삶은 뽐내지 말라. 죽음아 실망하지 말라. 너희는 둘다 생명 덩어리다. 삶의 끝은 죽음이 아니고 죽음의 끝은 자만도 아니라고. 생명의 변증법으로 신이 우리를 우리의 삶과 죽음을 온전하게 치유하실 그 때까지. 살아라. 죽어라.

성 베네딕토 스피노자는 자연의 능동성과 피동성을 말했다. "생산하는 생산되는 자연"이라고. 아버지가 생산되고 어머니가 생산하고. 또는 어머니가 생산되고 아버지가 생산하는 것. 물로, 불로, 흙으로, 공기, 빛 그 밖에 자연의 에너지로 자연을 보이는 자연을 생산하고 보이는 자연은 또 보이지 않는 자연/힘을 생산하고 창조의 여정은 진행된다.

인간은 거대한 자연 대 우주 안에서 그리고 작은 자연 소 우주 안에서 그리고 이것으로 살아 간다. 그리고 자연의 경이로움 앞에서 감탄하거나 이것이 너무 커서 공포심 그리고 경외심을 드러낸다. 우리 인간은 자연 안에서 자연을 통했 자연 앞에서 살면서 자연을 기대한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자연/힘이 우리를 압도한다. 자연은 잉태하고 생산하고 생산하고 잉태한다. 자연은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이기도 하다. 어머니의 욕망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욕망도 필요하기에.

우리는 또 자연을 기다린다. 소 우주에서 대 우주로 탄생할 자연을 기다린다. 생명의 자연을 기다린다. 소 우주에서 생명의 힘을 맘껏 누린 자연은 대 우주에서도 그런 권리를 갖는다. 자연의 계획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온유한 바람일 수도 있고, 거치른 포악한 바람일 수도 있다. 자연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계획이기에 그렇다. 종교인들은 신의 계획이라고 떠 밀기도 하지만.

막을 수 없는 자연의 힘과 계획이 있다. 그런가하면 막을 수 있는 힘. 죽음의 힘도 그렇다. 죽음도 자연의 일부라면. 그러하 막지 않는 힘도 있다.

또 다른 저편에 자연을 가장한 힘들이 있다. 자연이 아니지만 자연인체 하는 힘이 있다. 물, 불, 흙, 공기, 빛이 없이도 절대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짓 생명을 사는 유사-자연이 있다. 자연이라는 가면을 자연을 기만하고 약탈하는 기만적인 유사-자연이 있다. 자연을 해치고 그 자리를 대신하려는 유사-자연. 자연을 송두리채 뽑아버리려는. 하지만 땅을 뚫고 조용히 천천히 올라오는 자연의 힘 앞에. 소우주에서 대우주로 새로운 생명을 가는 자연 앞에 이러한 유사-자연은 겸손히 자신의 운명을 다해야 한다. 죽어야 한다. 땅 속의 흙으로, 작은 물 방울로, 아주 작은 빛으로, 숨쉬게 하는 한 줌의 공기로. 거듭나라!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생명/생태계가 파괴되었다. 신의 형벌/저주가 아니라, 인간 자신의 범죄라는 사실이 너무 확실하다.

하지만 타율/신율로만 삶의 방향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자연파괴 또한 인간 자신의 범죄를 넘는 신의 경고라고도 믿고 싶어 한다.

하지만 신의 저주라고 해서 인간의 책임과 대가가 축소되거나 완화될 수 없다. 더욱 인간 자신의 범죄라고 해서 윤리적인 일상의 책임의식에 대한 범죄가 약화될 수도 없다. 어찌 되었든 죽음 앞에서 생명을 구하기!이다.

현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말해 준다. 그것을 인정하든 안하든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존으로.

인간의 개인적/집단적 범죄 그것이 피/자율적이든 음모에 의한 것이든 이미 변명할 수 없다. 그 결과가 자신과 타인과 그리고 온 생명에 치명적인 죽음의 오류를 던져 주었다면, 더욱 정당화는 불가능하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타자/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 앞에 본능적인 방어막을 치게 된다. 이미 우리 앞에 안에 죽음이 습격하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지만 불가능 속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남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또 가까이에서 멀리서 우리의 생명의 춤추는 것이다.

우리는 거대한 음모와 그것으로 인한 실패의 작품으로 공포와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포와 죽음은 부정적인 의미라기 보다 오히려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움과 희망으로 다가가는 것으로 만난다.

자연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우리 모두는 막고 저항한다. 하지만 이것은 처절한 모습을 찍어내는 모습 속에서가 아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일상의 외연임을 깨달아야 한다.

자연은 스스로 자연으로 공포와 죽음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우리 자연의 연약한 일부의 비자연스런 횡포를 통해서도 우리를 더 공포와 죽음으로 내 몰 수 있다는 사실. 이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자연 앞에 자본의 저항은 따라서 무력할 수 밖에 없다. 소리 없는 자연이 연약하게 천천히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자본의 공포는 자연 앞에 어린아이의 장난끼만도 못하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자.

생명의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되고 있다. 보이는 보이지 않는 생명들이 인간의 탐욕의 대상이 되기는 마찬가지지만 이런 죽음은 바다의 생명체에게 사형선고다. 인간의 얕은 자본주의 축적/부정이 이러한 엄청난 죽음의 사건을 야기시켰다. 생명을 또 다른 생명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업으로 삼고 사는 이들, 자연을 바라보고 즐기고 숨쉬기 해 주는 이들 고독하게 물의 나라를 지키는 이들 이 들 모두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사후의 약방문'이라. 그 누구도 원망하지 못하는 애절하고 안타깝고 처절한 현장의 시간과 공간 그 모든 아픔과 공포도 우리 인간에게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생명의 자연은 아무 말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를 생명을 살렸건만 이제는 아무 고통도 없이 저항도 못하고 원망도 못하고 죽어 가고 있다. 이제 우리가 생명을 받아 먹기만 한 오만한 우리 인간이 죽음의 바다를 다시 다시 생명의 바다로 회복시킬 차례다.

검푸른 바다 요동치는 바다가 암흑으로 둘러 싸이고 또 그 죽음의 어둠은 물으로 물으로 생명의 땅을 습격하고 있다. 이제 인간은 그 어떤 정당한 논리로도 변명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드디어 자신의 목구멍에 죽음의 물줄기가 타고 오르기 전에 온 몸으로 죽음의 습격을 막아야 한다. 하루 아침에 생존의 현장을 잃어버린 저 가냘픈 다른 인간들도 이제 우리 오만한 육지의 인간의 범죄로 인해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자. 결국 죽음이 생명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도 인정하자. 하지만 수천년 생명의 바다 생명의 도시를 이룩한 자연과 신의 힘 앞에 우리 어리석은 인간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일까. 절망하지 말자. 희망의 물 줄기인 생명의 물 줄기를 포기하지 말자.

인간에게 자본은 생명의 저 맨 아래 끝 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고 인정했다. 모래 묻은 자갈에 묻은 기름을 닦아 내는 정신 속에서 그래도 생명이 싹이 움틀거림을 볼 수 있구나. 생명이란 그리 소중한 것은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커도 모두 동등한 가치로 소중한 것을. 생명의 바다 모든 생명들이 탄생하고 성장하고 꽃을 피우는 그 바다. 그 것을 죽이는 것이 그 속 좁고 비열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 검은 마음이었구나. 가자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다시 복귀하러. 가자 죽음의 마음으로 생명의 마음으로 다시 다시 복귀하러. 인간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 가자. 더 이상 자연이 신이 진노의 기름을 쏟아 붓기 전에. 2007년 이것부터 작정하자. 고해성사로. 자기참회로.

시간강사 별곡1 [낙서장](#)

2007/11/05 11:52 [수정](#) [삭제](#)

[복사 http://blog.naver.com/jpic1989/80044430352](http://blog.naver.com/jpic1989/80044430352)

그래도 열심히 했다. 주제 넘게 끝까지 공부도 했다. 남들이 알아 주건 말건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열심히 뛰었다. 그것 자체로만도 행복하다. 왜냐고 속사정 자세히 모르는 학생들에게 그 순간 짧은 그 순간들이지만 선생님/교수님 명칭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허영에 가득 찬 욕망도 허세도 아니다. 그냥 신이 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외양에 가려진 속 마음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이 몸과 가슴이 송두리채 쓰라리고 아프다. 누구를 원하고 닮고 싶은가. 그래.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절대 신적인 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허물어져 가고 있었다.

강의시간만큼은 신성한 학자와 교수의 모습으로 서서 가르치려고 애를 쓰지만 경력부족 시간부족 이력부족 등으로 정규 교수에 못미친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왜냐고 턱 없이 모자라고 비교되는 강사료가 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몸을 움추리고 있어야 한다. 전공 담당 교수들과 선배들의 눈치도 살피고 적당한 아부 아닌 아부로 정말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야만 다음 학기 생존에 빛이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강사의 설움은 일류대라는 거대한 횡포에 또 다시 맥이 빠진다. 물론 실력이 있을 거라는 기본적인 전제와 이른바 백그라운드/학벌/인맥/사회적 이미지 등으로 이들은 시간강사라도 시간강사가 아니다. 거기에 남들 보다 좋은 점수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전공했든 지금 그가 별볼릴 없는 현실의 모습일지라도 출세에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조금만 조금만 참으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강사라고 할 수 없다. 이른바 낙하산 시간강사라고나 할까. 출세의 족보. 출세의 면죄부. 희망의 사상과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첩경인 세상.

우리네 인맥/학맥/사회적 이미지 약한 시간강사들이야말로 정말 시간강사다. 아무리 경력과 이력을 쌓으려 해도 시간에 종속된 강사이기에 희망이 없어 보인다. 오직 신만이 시간강사를 구출할 수 있다고 믿고 싶지만. 배알이 풀린 냄비 뚜껑이 열린 시간강사 다열질 시간강사 성질 더러운 시간강사 의로운 정직한 한 가지 일에 매진하는 시간강사들의 미래는 밝진 못하다. 어두워진다. 점점. 왜. 왜. 사회적 현상인가. 당연한 현실인가. 이 모든 것이.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향이라도 할까. 지금까지 생명처럼 소중하게 닦아 온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인가. 오호 애재라 오호 통재라.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닮하라. 학교와 사회에서는 버림 받은 학자로 가정에서는 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삶의 가장으로서도 무능한 딱지를 달아야 하는 바로 처절하게 버림 받은 존재 같은 모든 것으로부터 내 몰아진 것 같은 우리네 시간강사. 비 정규직. 희망은 있을까. 종교적 사제를 양육하는 사제학교에서 초차도 이러한 일은 더욱 냉정하고 냉엄하게 비추어 진다. 아하 애재라. 통재라.

그래도 나는 간다. 이 길은 간다. 목숨 다할 때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버티라. 그리고 끝내 이기는 순간을 기대하라.

[보내기](#) [수정](#) [삭제](#)

덧글 쓰기 [약관](#) 1개

돈과 교회성장에 대한 비판적 반성 [낙서장](#)

2007/10/10 16:37 [수정](#) [삭제](#)

[복사 http://blog.naver.com/jpic1989/80043489966](http://blog.naver.com/jpic1989/80043489966)

돈이란 자본주의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환의 가치이다. 돈이 없다면 시민의 삶을 상상할 수 없다.

돈은 무엇이든지 상상하게 해 주고 현실화시킨다. 그 것이 정당하든 부조리하든 동일하다.

물건과 물건을 같은 가치로 바꾸는 시대는 지나갔다. 돈이야말로 가장 간편하고 효율적인 가치의 상징이며 교환수단이다.

중세에도 화폐가 있었다. 그래서 성당을 지으려면 온갖 건축자재와 인력이 필요했고 결국 이것을 맞바꿀 힘인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당시 성직자/사제들은 이 돈이 필요해서 돈과 유사한 종이를 만들어 '면죄부'라는 종교적 화폐로 또 다른 돈을 만들어서 돈과 바꾸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교회를 재건했다. 즉 면죄부라는 돈을 주면서 세속의 돈을 거두어들였다. 돈은 곧 신앙의 기준이 된다.

...

현대와 현대 이후에 화폐로서 돈 교환가치의 최고의 수단으로서 돈은 여전히 그 막강한 힘을

달라진 세계 속에서 휘두르고 있다. 단지 종교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그리고 삶의 기초와 방법과 방향을 가르치는 교육에서도 돈은 왕중의 왕이 되었다.

윤리와 도덕 이전에 돈은 바로 이러한 모든 척도를 결정하고 만드는 힘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힘에 의해서 그 힘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지배당하고 조종당하고 굴복당하며 향유하는 사회가 오늘의 돈의 사회이다...

그런 돈이 많으면 많을 수록 사회는 더욱 풍성지기도 하지만 더욱 빈곤해지기도 하다. 왜냐하면 돈은

골고루 배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구처럼 강한 중력으로 많은 곳에 더 많이 배치된다.

그러면 그럴수록 적게 놓인 돈의 배치는 공허하고 빈곤하고 황폐해지고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한다. 이런 힘 앞에 인간은 돈을 위해 사는 존재로 오해될 수 밖에 없다. 인간을 위한 존재로서 돈이 아니라, 돈을 위한 존재로서 인간으로 생산된다. 물질적인 성장과 비슷하게 정신적인 풍요 또한 이러한 돈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은 곧 정신적인 가치에도 마찬가지로 수용된다. 많음은 항상 좋은 것이고 적음은 항상 나쁜 것이라는 삶의 원리가 바로 이것이다...

곧 돈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신을 드러내는 가장 구체적인 물질화인 것이다. 아무리 추상적이고 신비하고 초월적인 권세와 힘과 지고 앞에서도 돈은 이 모든 것을 무색하게 만들며 여전히 군림하고 만다.

돈 없는 종교,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교육이 과연 존재할까.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돈이라는 면죄부 앞에 굴복당하고 굴복시키고 있다. 신은 존재할 수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돈은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전능하고 전지하다. 돈 없는 희망이라 있을 수 없고 돈 없는 사랑과 믿음이란 없고, 돈 없는 평화와 행복 역시 불 가능하다. 돈 돈 돈. 돈은 곧 오늘의 신이기 때문이다.

[보내기](#) [수정](#) [삭제](#)

[댓글 쓰기](#) [トラックバック 쓰기](#)

비움과 채움의 영성 [낙서장](#)

2007/10/01 18:00 [수정](#) [삭제](#)

[복사](#) <http://blog.naver.com/jpic1989/80043187085>

 Mr. Blog...

긴 추석 연휴 뒤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 많죠? 블로그씨도 생체리듬을 되돌리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명절후유증 풀기 노하우, 함께 나눠봐요~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무엇인가를 채워야 하는 것이 모든 만물의 원리이다. 하지만 더 많이 더 많이 채움은 정신적.물질적인 생성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하여 채움에 비움을 비움에 채움을 변증법적으로 운동하면 글썄 후유증은 또 다른 비움과 채움의 원리를 가르치게 할 것이다.

[보내기](#) [수정](#) [삭제](#)

[댓글 쓰기](#) [トラックバック 쓰기](#)

미얀마 민중/시민운동의 반복 [낙서장](#)

2007/09/29 17:50 [수정](#) [삭제](#)

[복사](#) <http://blog.naver.com/jpic1989/80043116787>

 Mr. Blog...

미얀마의 시위가 결국 유혈사태를 빚으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시국을 견디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 모두 기도해주세요.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는 현장을 간접적으로 목격하니 고통의 연대적 연민이 싹튼다. 이 시대를 무감각의 시대라고 하지만 고통의 현장은 우리를 무감각의 공간에서 탈출시킨다. 군부 정권이든 시민정권이든 민중과 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치와 정책은 폭력과 엮 비슷하다. 아니 폭력 그 이상의 것이다. 이러한 폭력으로 인한 고통 우리 모두의 양심과 신앙을 깨워야 한다. 만약 깨어 난다면 실천적 연대만이 있을 뿐이다. 폭력의 폭로를 통한 고발만이 있을 뿐이다. 만약

깨어나지 못한다면 폭력의 폭력을 생산하는 기계일 뿐이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불의와 착취에서 우리를 구해 주 듯이 우리도 불의와 착취에 맞서 싸우는
당신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소서.

미얀마/버마의 민중/시민과 종교적 주체들이 바로 그러한 힘들이듯이 우리도 이들을 위해서 기도로 실천으로 고통에 연대하고 폭력에 저항
뿐만 아니라 폭력을 해체시키는 평화의 힘을 실현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내부로부터 오는 폭력이 저들의 폭력과 협력하지 않게 하소서.

[보내기](#) [수정](#) [삭제](#)

[덧글 쓰기](#) [역인글 쓰기](#)

자본의 저항과 자연의 저항1 [낙서장](#)

2007/09/29 15:08 [수정](#) [삭제](#)

[복사 http://blog.naver.com/jpic1989/80043111282](http://blog.naver.com/jpic1989/80043111282)

현재 나의 생활의 반은 자연이 어울어진 시골에서 그리고 나머지 반은 개발과 도시의 한 가운데서
보내진다.

같은 조물주의 인간들이 같은 언어로 같은 의식주를 위해서 살고 몸부림치고 있다. 자연의 시골이라고
마냥 순박하지도 않으며 개발의 도시라고 마냥 당차지도 않다. 자연은 도시를 습격하고 있으며 도시는 자연을 습격하고 있다. 서로 당하고
쟁취한다.

나는 그 사이에서 '제 2의 자연'으로서 저항한다. 그리고 그 끝에 자유를 얻고 싶은 마음이다.

하지만 틈새에서 나는 자유를 찾으려는 욕망에 다시 빠지면서 매일의 자유를 얻고 싶은 마음이다.

누가 여기에 개입해야 하는가. 누가 그렇게 해 줄 수 있는가. 신인가. 기독교의 하나님인가.

어느 하나에 또는 그 사이에 강제와 힘을 거부하면서 나는 또 다른 힘을 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무엇을 위한 힘인가. 자유를 위한. 모든 것으로부터의.

내가 그렇듯 자연 속의 우리는 또는 도시 속의 우리는 자연 속의 자연으로부터 습격당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 속의 자연으로부터도 역시 습격당할 것이다.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 듯이 우리는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자연으로부터 그리고 도시로부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비 자연으로 몰아 가는데
일조하는 자본의 힘으로부터 자유하도록 습격당해야 한다. 끝 없는 습격과 침노만이 우리와 나와 관련한
모든 상생의 존재들이 자유롭게 될 것이다.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 바라 볼 수도 상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와 역으로 아주 작고 그래서 생각할 수
도 바라 볼 수도 상상할 수도 없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이 자연/우주를 창조했다고 믿는 유/신론자들 자연의 힘에 의해서 진화/생성되
었다고 믿는 무/신론자들 어찌 되었든 우주는 위대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우주를 연구하고 발견하고 알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그 일부에 불

과하고 거의 대부분은 아직 인간에게 미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우주라는 말로 자연과학에서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에서도 자주 등장시키지만 결국 그것은 실재/계를 상상/계로 그리고 상징/계로 연장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런데 소/대우주를

생명/기와 관련시키는 학/자들이 있다. 이들은 자연 그 자체에서 우주의 근원과 생성을 찾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기를 통해서 우주를 찾고 경험한다. 헤겔은 인간을 '제2의 자연'이라고 명칭했다. 이 인간은 또한 우주와도 연관됨을 동/서의 철학자들은 찾고 있다.

새삼스럽게 개발되고 문명화된 영역 도시를 자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다. 물론 자연이 전혀 배제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비 문명화된 영역 비 도시적인 곳을 자연적이요 자연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우주의 근원인 생명과 더욱 친근하며 밀접하게 생동적인 곳이어서가 아닐까. 하지만 도시에서도 '제2의 자연'으로서 인간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런데 문제는 자연/우주 그 자체와 인간은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소우주와 대우주 사이의 영/정신적 생명의 호흡을 주고 받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와 비교해서 비 문명화되고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극단적으로 미개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인간과 자연은 언어와 문자와 지식으로써 창조된 문명/문화의 통로가 아니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자연/제2의 자연이 소우주와 대우주의 상호주관적인 소통과 교통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키우고 더욱 생성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문화/문명이 이른바 더욱 고급화되면서 도시를 탈출하고 싶은 욕망이 창조적인 욕망이 반복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인간은 오히려 더욱 자연화되고 그러면서 덜 문명적이고 덜 문화적이라는 속설에서 과감하게 일탈할 수 있다. 참다운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문명과 문화적인 것을 자연/대우주로부터 제2의 자연/소우주에게로 뿐만 아니라, 만물 안으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위해서 창조적으로 상생하고 공존하며 서로 전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녹색 배움터가 그립습니다.

인간은 나면서 부터 의식주의 욕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전혀 학습되지 않은 아이도 그 인간의 근원적 언어 울음을 통해 의식주를 갈망합니다.

어디 인간뿐입니까.

모든 생명체 만물들이 각각의 언어로 의식주를 갈망하며 성취합니다.

그리하여 만물의 의식주갈망의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동등한 기회도 힘에 의해서 서열이 정해지고 흥하거나 망하거나 이루어지거나 몰락합니다.

모든 만물이 생존과 생명을 추구하는 원인은 동일하지만

이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힘을 내세워 많이 또는 적게 불평등한 결과의 현실들이 나타납니다.

자연의 법칙대로 자연에 의해서 모든 만물들이 학습하고 있지만

그 학습의 내용은 공평과 동등함보다 정작 불공평 불평등함이 앞세워 됩니다.

여기에 힘의 논리가 결정적입니다.

그리하여 자연의 만물은 자연의 법칙이 마치 힘의 논리인것처럼 학습하고 학습당합니다.

인간은 이를 위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환경에 잘 적응하는 인간들은 잘 살아 남고 그렇지 못한 인간들 이를 통해 강한 것과 약한 것이 나누어지고 차별화되고 박탈당하고

소외당하여 물질적 정신적 고통의 늪을 헤메게 됩니다.

그리하여 만물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자연의 법칙을 바꾸어 놓아

자연의 법칙을 반역하면서 자연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연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죽이는 것으로

생존의 법칙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이러한 생존 삶의 논리는 결국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를 황폐하게 만들며

결국 물질적 정신적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자연을 통해서 자연 안에서 자연과 더불어 배우고 가르치기보다

자연을 반역하며 자연을 짓밟으며 생명을 배우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녹색학습이 아니라, 생명을 거스르는 암흑 검은 학습
정작 학습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연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은 자연으로 되 돌려 주어야 합니다.
거져 받았으니 거져 되 돌려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오만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녹색 학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 녹색학습입니다.
적자생존, 약육강식이 자연의 법칙 모두가 아닙니다.
이 것은 가장 기초적인 근원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조화로운 상존 공존 상생이 전제되어야 진정한 자연의 법칙
녹색학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빠지다.

웅덩이 물 속에 빠지다.

곧 물 속에 깊이 잠긴는 상태.

깊이 빠지면 블랙홀처럼 몸정신이 하나가 되어 빠져 들어가

모든 것이 나의 판단의지와 관련 없이 깊이 들어가는 상태.

모든 내가 내 맡겨지는 던져진 상태.

이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웅덩이 물 속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비물질의 영역에도 빠진다.

물질적인 감각은 경험할 수 없지만.

이 역시 몸과 정신이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깊숙하게 깊이 들어가는 상태이다.

물질 비물질에 빠지는 이유 목적을 굳이 애써 찾을 필요는 없다.

일종의 정화 작용 신비적인 체험이 나와 우리를 무로 만든다.

숲 속에 빠지다.

하여 물 구덩이 또는 비물질의 영역에 빠지듯이

숲 속에 들어가면서 숲 속에 빠지게 된다.

숲 무한한 생명 온갖 생명이 살아 호흡하며 생존하고 생존하게 하는 자연의 일부.

온갖 잡생각 잡념에서 무념무상으로 정신과 몸을 정화하기 위해

숲 속에 빠진다.

그리고 나 우리의 몸은 자연의 바람으로 정신과 몸의 묵은 때 날려 버린다.

그리고 정화된 몸정신으로 숲을 빠져 세상으로 나온다.

그러면 몸정신은 서서히 세상의 때로 얼룩진다.

그러면 온 몸과 정신이 천천히 마비된다.

무념무상 잠념 욕심탐욕이 머리를 스치고 몸과정신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얼른 다시 생각한다.

숲에 다시 빠진다.

깊숙한 숲에 다시 몸과 정신을 흠뻑 빠진다.

반복하여 회귀하여

다시 나 우리를 찾는다.

인간은 매우를 넘어 너무 이성적인 동물이기도 하지만,
또한 너무 감성적인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매우 그래서 변이 변종 별종 변태도 적지 않게 생깁니다.
너무 이성적면 이성적으로 그런 변이들이 탄생합니다.
너무 감성적이면 그런 변이들이 탄생합니다.
문제는 이 너무 이성적이거나/그리고 너무 감성적이거나/그리고 아주 혼란스런
기대 밖의 상식 밖의 종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소우주적 발상은 대 우주 자연으로까지 확장됩니다.
자신과 타자를 너무나 것으로 만들고 생산되게 합니다.
겉치는 의복들, 먹어대는 음식들 그리고 머무는 거주지도 그리고 이것을 둘러싼 환경들도
그렇게 됩니다.
의복에서도 큰 차별과 차이가 생깁니다만, 여기에 신경을 너무 쓰는 인간들은 매우 많지 않습니다.
기후의 차이에 따라 의복이 달라지고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거주지도 오늘날 현대화에 따라서 다양한 호사스런 단편적인 다양한 거주지가 만들어집니다만
그래서 그러려니 하면 삽니다. 인간들은.
그런데 음식 생존과 직접 관계되는 음식이 관건입니다.
보통 하루에 세끼의 식사를 합니다만 그 이상으로 아니면 그 이하로 식사를 합니다.
심지어는 거의 식사를 하지 못해서 기아로 굶주림으로 이에 따른 여러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아프고 죽는 인간들도
지구상에
매우 많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매우 많은 것을 양과 질로 섭취하는 인간들도 적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맛의 감각을 위해서 취향
대로
음식을 분리해서 다차원으로 음식을 즐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적은 양으로 인해서도 큰 곤란을 겪게 되지만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신진대사 신체에 위협이 되면서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러한 다차원의 생존육구욕망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 개인과 사회의 관계 그리고 중요하게 인간과 자
연 대 자연 우주에까지 연장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개인 집단적인 과잉의 욕망육구는 타자들 그리고 사물들을 존재를 위협하고 깨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비와 생산의 딜레마이며 역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개인적 집단적 사회적 차원의 과잉의 생산과 소비는 에너지를 그 만큼 더욱 많이 필요하게 되며 여기서 불필요하게 생산되는

잉여쓰레기는 마치 인간의 신체에서 배출되는 잉여물질처럼 이와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물질로 타시 배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출되는 불필요한 쓰레기 물질은 지하 지상 그리고 대기까지 확장되면서 다시 기체 고체 액체로 고스란히

인간 일상으로 복귀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반갑고 환영할만한 선물이나 손님이 아니라, 생존의 욕망을 위협하고 죽이는 괴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가 매우 많이 오거나 매우 덮거나 또는 춥다고 말하면서 허공에 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괴물에 대한 경악과 공포와 두려움은 매우 낯설게 다가오면서 바로 인간의 내부에서 발생된 것의 복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이성과 감성의 극단의 변종 변이의 결과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포와 비참에서 벗어날 수는 있습니까.

우선 이러한 이성적 감성적 자각을 자신의 자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꼼꼼히 사유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위협과 위기 속에서 희망을 기다려 봅니다.

그러면서 나를 발견해 봅니다.

그러면 왜 비가 그리도 너무 많이 퍼부어 댔는지.

왜 그리 너무 더운지도

천천히 알아갑니다.

너무 빨리 모든 것을 독식하고 해치운 인간들에게 쉽 안식 기다림 천천히 하라는

그러면 이성도 감성도 너무 지나치지 않게

평정될 것입니다.



4대강 한강 낙동강 영산강 그리고 금강. 강은 태고로부터 인간과 문화 도시가 형성되는 본거지입니다.

한국의 4대강도 이러한 풍부한 물과 토지를 근거로 인간들, 도시들 그리고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4대강에 대한 또 다른 꿈을 꾸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4대강에 도전하겠다는 것입니다. 4대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을 거슬러 인간의 힘 막대한 경제적인 투자로

수십조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이것이 진실되고 일관성 있는 권력의 집행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마무리도 되기 전에 기후변동 붕괴로 인한 범람과 집행예산 사리사욕하려는 일당들의
안일한 건축등으로. 이제 4대강을 살리기는 커녕, 찬란한 문화를 꽃 피운 4대강 도시문화인간자연을 송두리채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노동자의 한숨의 더욱 깊어지고

이제 정말 못살겠다고 소리치고 땅을 치고 하늘을 원망할 판에

무슨 일관성 정책예산집행이란 말입니까.

꿈 보다 더 허무맹랑한 정책과 계획수립으로 죽는 것은 자연과 인간 송두리채입니다.

어찌 해야 할까요.

4대강에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주민서민민중들조차도 한숨이 터져 나오는데

그 주변 삶의 터전으로 살고 계신 농심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왜 돌로 쌓은 성을 무너뜨리고 모래로 튼튼한 독을 세운다고 공상하고 있습니까

답답하고 죽을 지경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강사들 노동자들 서민들의 허리는 쪼일대로 쪼아져 있는데
수십조원. 그냥 날릴 사태가 도래하는지도 모르고
그 좋은 머리로 꼭대기 까지 올라간 당정청공무원 나리들
나만 호화사치로 살면 그만입니까.
인간을 제발 원래대로 되 돌려 주십시오
자연을 제발 원래대로 되 돌려 주십시오
땅을 제발 원래대로 되 돌려 주십시오
하늘을 제발 원래대로 되 돌려 주십시오
목숨을 생명을 제발 되 돌려 주십시오
제발 정신좀 차리십시오.
그러다 땅이 분노가 차고 하늘이 징벌할 즈음
후회하지 마시고들
제발 좀 그만 4대강사업 그만!!!

표현력이 탁월한 인간에게 지진 쓰나미. 인간의 능력으로 막아낼 수 없기에 인간보다 비교할 수 없을만큼 강력하기에 섬찝합니다. 무섭습니다. 공포입니다. 슬픔입니다.

더욱 슬픈 것은 망각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모든 사물들이 한꺼번에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전적으로 외적 자연 지진 쓰나미에 떠 밀려 가는 온갖 익숙한 나의 사물들, 너의 사물들, 우리의 사물들이 통채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더욱 잔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억울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껏 혈연공동체로 결연공동체로 살아 왔던 인간들과 그 것을 채우는 모든 사물들이 사라지고 고독하게 남아 있어야 하기에 슬픈 것입니다.

나에게서 인간에게 이 엄청난 위력이 역습이 발생되지 않았기에 억울합니다.

하지만 수 많은 기억되는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더욱 원망스러운 것은 무한하게 완전한 절대적인 신들에 대한 배신감입니다.

일상에서 저 멀리 가버린 그러한 존재였을지라도, 이렇게 참혹한 현실 앞에서 그 신들은 원망덩어리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외쳐 보아도 대답은 없습니다. 메아리만 길게 아니면 짧게 왕래할뿐 입니다.

그렇다고 일상의 한 가운데 자연을 원망할 수도 바다를 원망할 수도, 바람을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자연에 다 맡기고 살았지만 하루 아침에 무너집니다.

자연은 정말 자연스러운 것인가. 아니면 무슨 저주로 반 자연스러운 것인가.

시간이 흘러 갑니다. 공간도 바뀝니다.

처음의 원망과 한탄과 슬픔은

다시 일상의 현실로 나를 복귀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수 많은 가족들, 인간들, 생명들, 자연환경들, 집들, 재산, 여기에

정신적으로 공들인 모든 이웃, 사랑, 희생, 우정, 헌신, 노력, 기쁨도

하루 아침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멀고도 가까운 나라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 너 우리의 이야기로 언제든지 돌변합니다.

그 시절이 다가오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 안에 정말 자연스럽게 살아왔는지.

아니면 쓰나미보다 더 흉측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고독한 나만 제외하고 모두들 쓸어버릴 기세로.

너 자연의 일부는 뻔뻔하게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황사는 자연이다. 아니다. 황사는 중국의 황하강변에 모래흙이 거센 바람으로 대륙을 넘어 북한을 넘어 서해안으로 남한으로 덮치는 무거운 모래흙을 동반하는 구름공기.

매년 봄 이 무거운 반갑지 않은 무거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체 생명체에 유해한 사막의 흙덩이가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덮어씌운다.

중국의 땅도 크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면서 무진장의 문제도 안팎으로 내뿜는다.

작은 땅덩어리 북한과 남한의 영토에도 그냥 인자하게 지나가지 못하고 바람따라 제 멋대로 방향을 틀면 한반도를 덮는다.

그냥 사막화로 인한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한다면 맘이 편할 것도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인간의 너무 지나친 개발과 성장 발전의 논리에 의해서 결국 뒤집어 쓰는 것은

주범 인간과 무고한 다른 생명체와 환경 또 생명을 생산하고 지속하고 연장시키는 자연 그 자체가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비가 오면 그냥 버티거나 우산을 쓰거나 밖에 나가지 않거나 눈이 오면 눈을 맞거나 피하거나 제 마음대로. 황사도 그냥 온 한반도를 덮어 씌워도 외출을 안 하거나

하면 그만인가. 밖에 황사 먼지 모래 흙덩이가 쌓이거나 말거나. 당장 숨이 막이는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나와 너. 현실의 향락을 채울 욕망을 찾기도 시간과 공간이 모자라는데. 하면 한심하지만 영악한 사유를 지속한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닌가보다. 이제. 정말 나와 나 할 것 없이 인간 생명체 모두 죽음으로 목숨을 삼키려는 위협과 역습이 계속된다. 자연을 업고 위장된 죽음으로 변한

자연이 인간에게 역습한다. 자업자득.

그런데도 인간의 지칠줄 모르는 탐욕과 욕망 범치는 자발적 비자발적 공개적 비공개적 합법적 불법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행되고 그렇게 될 준비를 하고 있는가 보다.

이걸 자연이라고 해야 하는가. 진정으로 God이 우리에게 내려준 선물이며 과업이라고 해야 하는가.

이것은 아닌가 보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사람 덜 못 가진 사람 생명 환경 모두 예외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자연이 아닌 자연.

그러면서도 인간 저 혼자 살아 볼려고 안간 힘을 다하여 더티고 있다.

문제는 누가 죽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누가 나중에 빨리 또는 천천히 죽어가느냐가 관건이다.

뒤틀린 욕망에 의해 자연으로부터 자연 자체가 인간을 인간으로부터 죽고 죽이고 있다.

황사를 통한 인간의 탐욕의 극단은 죽음의 극단을 만든다. 인간 그 오만한 인간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갖 생명체들까지도 동반자살로 이끌고 있다.

영악한 욕망의 인간은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럴때 이 영악한 인간이 가장 바보스럽게 어리석게 욕망을 포기하고 느리게 삶에 투신할 때

가장 지혜로운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지칠줄 모르는 자연 우주 생명에 대한 인간의 탐욕,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악랄하게 자연은 그 곱으로 뒤틀린 모습으로 자연의 희생을 감수하며

습격한다. 생명 전체를 향해서.

자연을 미워하지 말고 God을 미워하지 말고 너 나신을 미워하라.

Know yourself, Erkenne dich selbst.

이제 짝짓기를 해도 되나요?라고 묻는다면, 역시 노장의 철학자 스승 E. 블로흐의 유대묵시적 경고에 귀를 기울여 봄 직 하다. 셸링과 마르크스를 짝짓기 하셨던 그 노 스승의 말씀은 Schon! Noch! Nicht! 자연은 제 멋대로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만 두고 버리고 싶을 때 서로 버리고 버림 받는다. 그렇지만 이러한 환영과 이별 뒤에는 언제나 전혀 가공되지 않은 유전자 전이가 일어난다. 그래서 생명은 영원하다라고 외칠만 하다. 그렇지만 자연이 또 자연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의 촉박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느낌 기다림 게을름이 미덕이 될 뿐이다.

인간만이 그 모든 미덕을 깨고 때론 아주 종종 악덕을 이용해서 짝짓기를 교란시키는 것 같다. 가장 지적인 동물존재가 가장 비 지적인 동물의 전략이 되어가는. 그렇기에 가장 숭고하면서도 가장 천한 그러기에 신체와 정신 그리고 혼을 가진 존재라고 자만한다. 그리고 그 누가 보아도 인간만이 홀로 잘란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변종도 많다. 그래서 별종도 많다. 가장 자비하면서 가장 잔인한. 가장 사랑스러우면서 가장 추악한. 등등. 이미 아직 아니라 마찬가지로 묵시적 시간 느낌 기다림 게을름의 시간을 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자연은 자연의 순리와 법칙대로 교육하기에 잘 돌아간다. 여기에 철저히 자율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 식물 생명체들 특히 인간은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완전한 자율로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율을 핑계로 삼아 온갖 몹쓸 짓 짝짓기를 은폐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사랑과 공의가 결여된 채로 그렇다. 그래서 교육은 채찍질같기도 하다. 맞으면 아프지만 아픔을 잊고 나면 진정한 자율과 성숙이 온다는 것. 이 교육을 참아내지 못하면 채찍보다 비교할 수 없는 폭력의 사태가 도래한다는 것.

짝짓기에는 나와 너 너와 나의 응답으로서 교감과 애무 앞을 가릴지 못하는 강렬함이 존재한다.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는 합일. 너도 없고 나도 없는 온갖 사랑의 희생과 잉여만 있다. 그래서 둘은 치유된다. 해소된다. 비워진다.

인간이 자연과 짝짓기도 원래 이런 것이 아닌가 싶다. 대책 없는 하지만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숭고함이 깃들어 있는 행위. 악어와 악어새는 공존하기 위해 서로 일종의 짝짓기를 하는 행위와도 비교된다.

어저께 추석은 무척 더웠다
추석에 즐거움보다 걱정이 앞섰다
음식이 상할까봐
더위에 부모님, 형제들,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만나지 못할까봐
그래서 더운 추석은 추석 같지 않았다

어저께 추석은 그래서 기억에 없다
음식 먹은 생각, 부모님, 형제들,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이 그래서 기억에 없다
어저께 추석은 무척 더웠다
어저께 추석은 추석 같지 않았다
어저께 추석은 그 옛날 추석도 잊게 했다
더운 추석은 추석이 아니었다

오늘은 서늘하다
추석이 생각난다
서늘한 추석이 생각난다
서늘한 추석에는 즐거움이 크다
그래서 음식걱정 안 해도 좋다
정말 추석은 이런 서늘함이 감싸야 좋다

오늘 추석은 부모님, 형제들,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기억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부모님, 형제들,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은 항상 있다
안 보이는 부모님, 형제들,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인데
서늘한 추석에 모두 즐거움의 기억에 항상 여기 있다

더운 추석은 싫다
더운 추석은 추석이 아니기에 싫다
서늘한 추석이 좋다
서늘한 추석이 진짜 즐거움의 추석이다
항상 여기에 있는 서늘한 추석이 좋다

자본과 자연의 저항

현재 나의 생활의 반은 자연이 어울어진 시골에서 그리고 나머지 반은 개발과 도시의 한 가운데서

보내진다.

같은 조물주의 인간들이 같은 언어로 같은 의식주를 위해서 살고 몸부림치고 있다. 자연의 시골이라고

마냥 순박하지도 않으며 개발의 도시라고 마냥 당차지도 않다. 자연은 도시를 습격하고 있으며 도시는 자연을 습격하고 있다. 서로 당하고 쟁취한다.

나는 그 사이에서 '제 2의 자연'으로서 저항한다. 그리고 그 끝에 자유를 얻고 싶은 마음이다.

하지만 틈새에서 나는 자유를 찾으려는 욕망에 다시 빠지면서 매일의 자유를 얻고 싶은 마음이다.

누가 여기에 개입해야 하는가. 누가 그렇게 해 줄 수 있는가. 신인가. 기독교의 하나님인가.

어느 하나에 또는 그 사이에 강제와 힘을 거부하면서 나는 또 다른 힘을 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무엇을 위한 힘인가. 자유를 위한. 모든 것으로부터의.

내가 그렇듯 자연 속의 우리는 또는 도시 속의 우리는 자연 속의 자연으로부터 습격당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 속의 자연으로부터도 역시 습격당할 것이다.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 듯이 우리는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자연으로부터 그리고 도시로부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비 자연으로 몰아 가는데

일조하는 자본의 힘으로터 자유하도록 습격당해야 한다. 끝 없는 습격과 침노만이 우리와 나와 관련한

모든 상생의 존재들이 자유롭게 될 것이다.

자본에 저항하는 자는 유토피아/무 장소를 향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에 저항하는 자는 죽음이 기다린다면.

삶자연 이야기

블로그 panhenkaihenpan <http://blog.daum.net/spinoza07>

저자 이 석규

발행일 2011.01.29 15:32:25

 블로그